

한국 지방금융협회 60년사

60-YEAR HISTORY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60년사

60-YEAR HISTORY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 간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입니다. 1964년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시작하여 지난 6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객 중심의 가치, 지역 상생, 신뢰와 협력, 전문성 강화,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자산운용, 지방재정·회계의 선진화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사업의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및 회계분야의 지적재산의 공유 강화를 통해 세계 속의 공제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정신은 우리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을 토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류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0년사 발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더욱 기여하겠다는 임직원 모두의 다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60년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 인 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0년사

60-YEAR HISTORY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1964 - 2024



발간사	002
목차	004
연혁	006

History 약사

I

Chapter 1

도전과 성장(1964~2013) :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제회의 새 장을 열다	012
1. 상부상조를 위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공제회' 설립	013
2. 지방재정 공제사업의 기반 마련	014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015
4. 사업영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016
5. 자산운용의 확대와 의사결정체계 고도화	018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019
7.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관의 역할 확대	020

Chapter 2

변화와 전진(2014~2020) :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다	023
1. 신규사업 도입과 주요 사업의 고도화	024
2. 지방회계통계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	026
3.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성과 노하우	027

Chapter 3

새 비전 실현(2021~2024) : 글로벌 지방재정 기관으로 도약하다	029
1. 세계를 향한 새 비전과 전략의 수립	030
2. 사업 혁신과 성장으로 지역경영을 선도	032
3.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전문역량 강화	036
4.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	037

Theme Story

테마사



Appendix

부록



Chapter 1

함께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 Culture-Change 042

1.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운영 043
2. '성과'와 '인간중심 경영'의 균형을 통한 조직문화 재정립 046
3. 채용 고도화를 통한 직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증진 050
4. 신나고 행복한 직장 : 사회적 약자 배려와 상호 존중 문화 054

Chapter 2

조직의 성장과 발전 : Growth and Development 062

1.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조직의 신설과 강화 063
2. 미래 도약을 위한 공제사업 혁신 069
3. 지방재정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078
4. 종합관리체계 기반의 회원지원사업 확대 085

Chapter 3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향한 발걸음 : Globalization 090

1. 세계를 향한 첫걸음, 국제 컨퍼런스 개최 091
2.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 주요 사업의 글로벌 교류 확대 094
3. 글로벌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 099
4.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류 확대 103

Chapter 4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 : Sustainability 110

1.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 운영 111
2.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의결기구 운영 116
3. '사회공헌위원회' 출범과 ESG 경영 선포 119
4.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경영성과 126
5. 지역사회 동반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옥외현판 설치 128
6. 60년 역사를 담은 '재정공제 아카이브' 설치 129

1. 재정공제회 소개 134
2. 현 이사장 및 임원 135
3. 역대 이사장 136
4. 조직현황 및 변천사 138
5. 사회적 책임 경영 주요활동 140
6. 주요 재무통계 142
7. 수상·MOU현황 144
8. 회원 리스트 147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50

1964~2011

1964

1964.0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발기

1964.09.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등기

1971

1971.11.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정

1973.0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1983

1983.01.

공공청사정비사업 도입

1988.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

1989.06.

정관 개정, 공공시설 및 재산조성사업 추가

1989.09.

공공시설 및 재산조성사업 도입

1990

1990.01.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 도입

1992.01.

정관 개정, 목적사업 추가 및 상임이사제 등 실시

1993.05.

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국제협력업무 도입

1997.07.

지방재정회관 준공

1998.01.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사업 시행

1998.02.

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사업 도입

1999.01.

영조물배상공제사업 도입

2000

2000.02.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 신설

2003.02.
업무배상공제사업 도입

2003.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법률 제6872호)

2007

2007.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 한국옥외광고 센터
설립근거 마련(제11조익4)

2008.01.
옥외광고사업 도입

2008.05.
옥외광고센터 개소

2008.10.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자 선정방식 행안부 승인

2009

2009.01.
공제사업 차세대업무정보시스템 시행

2009.01.
1차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운영 - 8개 권역 250기

2009.08.
단체상해공제사업 도입

2009.12.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범위 확대

2010

2010.0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2010.07.
간판문화 선진화 대국민 캠페인 전개

2011.12.
간판개선 시범사업 도입

2012~2023



2018

2018.12.
공유재산 수탁기관 지정

2019.01.
4차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운영

2019.05.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2019.0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2020.04.
운용자산규모 1조 원 달성

2021

2021.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부회계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간 업무협약

2021.06.
타당성조사전문기관 지정

2021.09.
타당성조사 사업 도입

2022

2022.01.
5차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운영

2022.02.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개소

2022.03.
광역센터 개소(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2022.06.
지역활력지원단 개소

2022.11.
2022 옥외광고 산업전 개최

2022.12.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

2022.12.
공제사업 총 공제회비 2,000억 원 달성

2023

2023.07.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사업 도입

2023.09.
창립 60주년 기념 '재정공제 아카이브' 조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964년 설립되었습니다.



History

Chapter 1

도전과 성장 (1964~2013)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제의 새 장을 열다

Chapter 2

변화와 전진 (2014~2020)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다

Chapter 3

새 비전 실현 (2021~2024)

글로벌 지방재정 기관으로 도약하다



Chapter 1

도전과 성장 1964~2013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제의 새 장을 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유재산 관리와 재해복구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64년 9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및공단 등을 회원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설립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공제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방관공선, 영조물배상, 업무 배상, 행정종합배상,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지방재정공제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지방재정의 새 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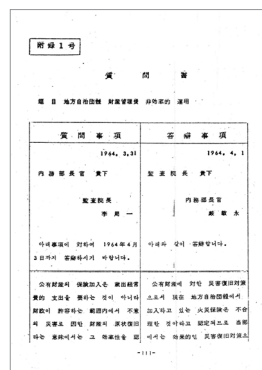


1 / 상부상조를 위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공제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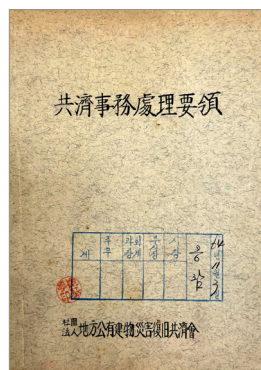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64년 무렵이었다. 그해 1월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유건물의 재해대책을 검토한 결과, 공유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내무부는 재해보상 위주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보험제도와는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해보상뿐만 아니라 복구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다.

설립 발기인 대표인 내무부 차관은 1964년 6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총회에 설립 동의를 요구하고, 1964년 7월 15일 비영리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의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1964년 9월 3일 내무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1964년 9월 12일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재정공제회의 전신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를 설립·발족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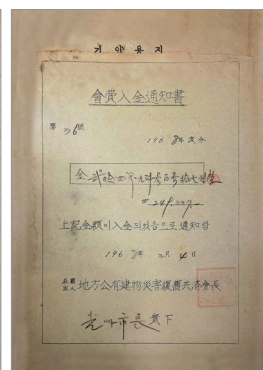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적 기반인 상부



공제회 설립문서



공제사무처리요령(1964)



회비금통지공문(1968)

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회원들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건물의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 지방행정, 안정적 재정 운영,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유건물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2 / 지방재정 공제사업의 기반 마련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의 첫 번째 사업은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이었다. ‘재해복구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재, 풍수해 등 재해 피해 시 건물 복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1971년 11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물’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의 재해복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재해 피해 시 건물 복구비를 일반보험의 1.5배 수준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는 이미 1972년부터 ‘지방공유건물 재

災害보상 제도화
火災보험 包括付保 추진 언저리

負擔완화가 宿題
料率 割引 가능 提示 바람직

策 略

구분	단위	자산	부채	잔액
총계	천원	1,234,567	876,543	358,024
자산				
현금		100,000		100,000
예금		500,000		500,000
채권		634,567		634,567
부채				
차입금			800,000	800,000
기타			76,543	76,543

매일경제 <재해보상 제도와 화재보험 포괄부보 추진> (1972.12.09.)

해복구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지방청사 등의 개축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정비해야 할 노후·불량청사의 수가 너무 많았고, 정비 시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에 이어 1983년부터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청사 정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는 회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회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 시도 단위의 종합정보처리전산망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유용한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료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자치단체 및 수요 부처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재정 운영·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3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1964년 9월 12일 설립된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는 1988년 6월 1일 기관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했다. 기관의 이름을 새롭게 변경한 것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명칭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는 기관의 업무를 재해건물의 복구 지원과 지방청사 정비 업무로 한정하고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과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재정공제회는 곧바로 정관을 개정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추가했으며 회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10차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공제회의 설립 목적을 ‘공유건물의 재해복구 및 보수대책’에서 ‘공유건물의 재해복구 지원 및 재산의 조성·관리, 보상지원과 지방재정 발전의 기여’로 변경했다.

둘째, 설립 목적 변경에 따라 목적사업의 종목도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정관에서 명시했던 목적사업은 ‘공유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급과 유지보수에 대한 조사연구, 부동산 임대,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추가·조정해 ‘공유건물 및 재산에 대한 복구지원, 관용차량의 사고에 대한 보상지원, 공유건물의 신축에 대한 대여와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부동산 임대업,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셋째, 회원의 종류에 준회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조합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재정공제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통상회원, 준회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설립 이후 25년 동안 재해건물의 복구 지원과 지방청사 정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로도 재정공제회는 지속적인 정관 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조정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나무 현판

4 / 사업영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태어난 재정공제회는 본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정관 변경 등을 통

해 재정공제회가 새롭게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 발전 연구지원사업’,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재해복구기금 대여사업’, ‘영조물배상공제사업’, ‘업무배상공제사업’ 등이 있었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공제회는 1989년부터 ‘지방재정 발전 연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회원지원사업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요람, 지방재정지, 지방재정 관련 제도 해설집 등의 도서발간 사업을 실시했으며, 1990년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 전산망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통계 발간, 재해복구 업무 등에 활용했다.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에 대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민간 해상보험 대비 저렴한 비용과 복구비 확대 지급 등 지방관공선 관리·유지의 저비용·고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했다.

1994년에는 ‘재해복구기금 대여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공제등록 건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건물에 대하여 부족한 복구비를 대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어 1999년에 도입한 ‘영조물배상공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인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었다.

2003년부터 실시한 ‘업무배상공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

한편,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재정공제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등 신규사업 수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 나갔다.



격월간 「지방재정」(1992.06.)

또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재정 관련 각종 제도 연구, 해외재정 관련 제도 연구, 지방재정 관련 학술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5 / 자산운용의 확대와 의사결정체계 고도화

1983년부터 시작된 '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되면서 자금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금운용 초기에는 가용자금이 적고 불규칙하여 공제사업자금과 함께 단기예금으로 운용되었다.

1995년 재정공제회의 회계에 세무상 목적으로 수익회계를 구분계리하면서 계상된 운용자산은 1,072억 원이었으며, 이는 당시 총자산의 33% 규모였다. 이 당시에는 정기예금을 비롯한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었으며, 수익률은 13.94%였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 은행과 대기업의 도산이 이어졌음에도 자산운용 수익은 11.29%를 기록하였고, 1998년은 18.31%로 수익률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는 정기예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기조에 자산운용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더해진 결과였다.

2003년에는 운용자산이 2,000억 원을 돌파했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확정금리형 상품에 더해 주식, 채권, 그 밖의 대안투자를 시작했다. 2006년 재정공제회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단기자금 17.8%, 채권형 27.2%, 주식형 33.0%, 대안투자 21.9%였으며, 연 수익률은 6.76%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관리능력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합리적인 자산운용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도입하였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정보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공공기금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이에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자문위원회 등 의사결정체계

를 고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처음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또한 리스크관리부를 신설함으로써 균형과 견제에 기초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자산은 2010년 4,000억 원에서 2013년 5,3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4.62%를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공제회 및 중앙회 자산운용평가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16개 기관 중 2위를 기록하였고, 운용자산 규모 대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외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1차 투자자문위원회(2013.09.29.)

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21개의 지방공사·공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며, 이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나 공공청사의 정비작업,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이었다.

하지만 재정공제회는 회원 구성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행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보유재산의 복구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체계, 업무에 대한 규제·감독 등을 규정하는 근

거가 미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9월 17일에는 의원입법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03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15일 법률 제687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비로소 재정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제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기 위해 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설립 목적이 명시되었다. 특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정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적립금의 안정적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003. 5. 15 제정 법률 제 6872호
2008. 2. 29 개정 법률 제 8052호
2011. 8. 4 개정 법률 제10994호
2013. 3. 23 개정 법률 제11609호
2014. 11. 19 개정 법률 제12845호
2017. 3. 21 개정 법률 제16208호
2017. 7. 26 개정 법률 제16808호
2018. 10. 16 개정 법률 제1902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설립의 목적)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7 /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관의 역할 확대

2000년대에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지방자치 정책에 있어 분권적 재정혁신과 재정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재정분권 과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재정공제회의 사업

또한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방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재정관리제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의 확대는 물론 주요 국제행사 지원 등을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서부터 지방재원 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우선 공제사업의 확대는 2000년대 중·후반 민간보험사의 공공부문 진입 시도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공제회는 그동안 '재해복구 공제사업' 위주의 단편적 사업 운영을 해왔다는 자성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개선과 사업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제사업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9월에는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사망 및 상해 시 발행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의 협정을 통해 '단체상해공제사업'을 도입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과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년 거치, 10년 범위 내의 상환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개발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재정공제회는 2008년 5월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행정종합배상공제 조인식(2013.04.03.)



옥외광고센터 출범(2008.05.3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창립기념식(2010.05.07.)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한국 옥외광고센터(이하 ‘옥외광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2008년 말부터 대형지주이용 광고물로 국제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간판개선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옥외광고센터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간판개선시범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간판개선 컨설팅 및 기술지원,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및 간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했다.

한편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기금관리, 기금배분, 기금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재정공제회가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금관리 및 행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피해 및 재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각종 국제행사 지원,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산, 지역상생발전 기금관리 등 사업다각화 및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Chapter 2

변화와 전진 2014~2020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다

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과 함께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
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고도화
하면서 회원지원사업을 활성화해 나갔다.

또한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옥외광고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유재산
수탁기관 등으로 연달아 인정받으면서 지방재정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 나갔다.



1 / 신규사업 도입과 주요 사업의 고도화

재정공제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재정공제회의 대표 사업인 공제사업 분야에서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니즈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과 재산관리에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우선 창립 50주년이었던 2014년 1월에는 회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하는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재정공제회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관공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17년 7월에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난피해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안전 공제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사·군·구 주민이 예기치 못한 범죄,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강도, 가스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제사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재정공제회의 대표

시민안전공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등록

등록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록대상 주민등록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외국인 포함)

공제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등록방법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전자결재로 접수
담보의 보장인도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공제가입 장점

시민안전공제사업 안내(2017년 리플렛 일부 발췌)

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같은 해인 2017년 8월에는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토목 및 건축, 플랜트 등의 공사 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관계자가 입은 공사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한편, 재정공제회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2008년 제1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제2차, 2016년 제3차, 2019년 제4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갔다. 특히 2019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올림픽대로에 기금조성용 대형 디지털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전국의 주요 시내 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관리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요자산이기도 하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법령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가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공제회는 2019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 MOU(2017.08.08.)



시민안전공제업무협약(2017.07.27.)

2 / 지방회계통계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

재정공제회는 2016년 지방회계통계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설립했다. 출범 당시 ‘지방회계통계센터’는 4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은 데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담당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꼈으며 제도개선도 더뎠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괄된 재정통계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계·재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재정 통계 산출과 지방계약 민원·분쟁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재정공제회는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회계업무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재정공제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회계통계센터’의 명칭을 ‘지방회계통계본부’로 변경했다.

‘지방회계통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했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을 통해 지방재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갔다. ‘지방회계통계본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지방회계 및 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지원
- ▲ 국가 및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 분석
- ▲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
- ▲ 지방계약 상담·교육 및 계약분쟁 사전 검토와 조사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식(2016.02.16.)



정부회계학회 춘계세미나 토론(2016.04.21.)

3 /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성과 노하우

사업다각화와 고도화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온 재정공제회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내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다.

2017년 2월에는 지방회계통계 업무를 전담해 온 지방회계통계센터가 개소한 지 1년 만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지방회계 및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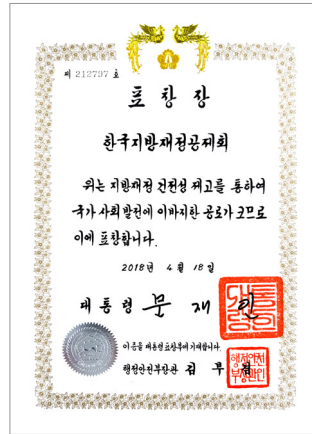
또한 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옥외광고 관련 제도 및 산업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8년 12월에는 공유재산 위탁 관리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



한국옥외광고센터, 대통령 표창 수여 (2017.04.20.)

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정공제회는 ‘공유재산 수탁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일련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통령 표창 수여 (2018.04.18.)

이어 2019년에는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작성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재정공제회는 2016년 ‘지방회계 통계센터’를 설립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방회계 및 통계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 9월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더욱 전문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이후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공유재산 안전진단 지원사업, 건물시설물 위험관리 컨설팅,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 재해복구 등의 공유재산 안전관리는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 안전문화대상’에서 ‘민간기관 우수사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안전문화 발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정공제회의 이와 같은 성과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Chapter 3

새 비전 실현 2021~2024

글로벌 지방재정 기관으로 도약하다

재정공제회는 2021년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사업을 고도화·전문화시켜 나가는 한편 조직문화와 경영체제 혁신을 추진해 나갔으며, 글로벌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적재산 공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조직과 사업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1 / 세계를 향한 새 비전과 전략의 수립

재정공제회는 1964년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로 출발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발전을 이끌며 국내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과 함께 2021년에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했다.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은 재정공제회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재정공제회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 비전 목표’를 ‘자산 2조 원, 회원지원 사업비 1,000억 원 달성’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비전체계 수립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정공제회의 중장기경영전략 체계와 정부의 국정방향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방향을 반영하는 등 향후 2~3년간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재정공제회의 미션 및 경영방침을 내재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발전모습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재정공제회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사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방재정 효율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옥외광고 진흥’, ‘사회적 책임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로 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 ② 공제사업 혁신 및 신사업 지속 발굴 ③ 자산운용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 ④ 맞춤형 회원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⑤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투자 분석 지원 ⑥ 지역활력을 위한 진단 및 지원 고도화 ⑦ 4차산업 기반의 옥외광고 사업 혁신 ⑧ ESG 경영 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⑨ 전문인재 육성을 통한 지

역발전 촉진 ⑩ 글로벌 지역발전 네트워크 고도화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 경영 전략과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장기 전략체계도

2 / 사업 혁신과 성장으로 지역경영을 선도

재정공제회가 새롭게 수립된 비전을 실현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방재정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사업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회원지원사업의 혁신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2021년 '회원지원사업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지원사업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는 새롭게 수립된 2030 비전 목표 중 하나인 '회원지원사업비 1,000억 원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방안에 따라 회원지원사업의 범위를 ESG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Social(사회적 책임)의 관점으로 확장했다. 또한 회원지원사업의 분류를 총 9개 분야 50개 단위사업으로 체계화하고, 회원지원사업의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회원지원사업비는 2021년 495억 원에서 2022년 585억 원, 2023년 6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전달식(2023.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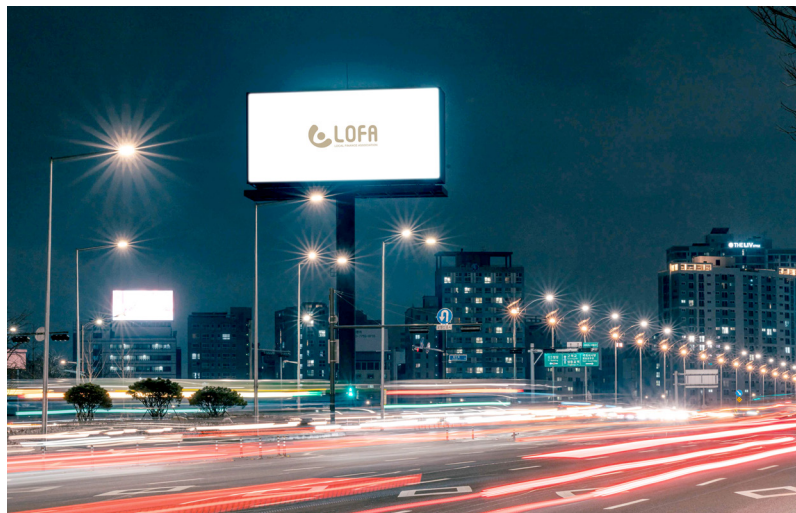
지방재정과 사회적자본포럼(2023.10.19.)

재정공제회는 회원지원사업에 대한 혁신과 함께 재정공제회의 주력사업인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갔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회 재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손해배상,

시민안전 등 총 1,195억 원에 달하는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공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재정공제회는 재해나 사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최단시간 내에 공제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국제표준인증(ISO 22301)을 취득했다.

또한 2009년부터 옥외광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총 152기의 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차 사업부터 5차 사업까지의 수입은 총 4,300억 원 수준으로, 수익금은 국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지원을 비롯해 각종 옥외광고 문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다.



여의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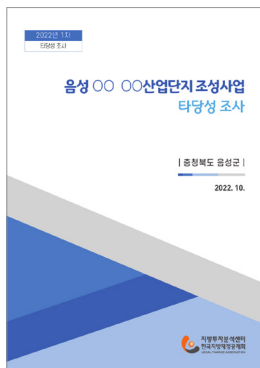


간판개선사업

이처럼 재정공제회가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있다. 재정공제회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공제회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을 통해 2021년에는 운용자산이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운용자산은 1조 541억 원, 운용수익은 595억 원을 기록했다.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공제회의 연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5.64%였으며,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향후 2028년에는 운용 규모가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공제회는 핵심사업에 대한 혁신과 함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는데, 2022년에만 지방투자분석센터, 4개 광역센터, 지역활력지원단 등 3개 조직을 새로 설치했다. 지방투자분석센터는 각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들과 함께 타당성 조사 및 연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는 재정공제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에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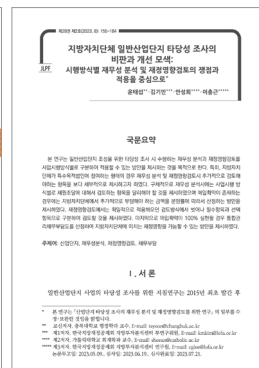
광역센터의 경우 기존의 17개 시도지부 체제를 지원·확대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정공제회는 4개 광역센터 설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방재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부와 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공제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충북 음성군 타당성 조사사업 보고서



공공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침연구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논문

또한 2022년 5월부터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부 조직화를 통해 지역활력지원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보다 책임 있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집행, 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호남권광역센터 개소 및 현판식(2022.03.30.)



충부권광역센터 개소 및 현판식(2022.03.23.)



지역활력지원단 개소식(2022.06.30.)

3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전문역량 강화

현재 재정공제회의 조직 규모는 2014년 82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조직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대폭 확대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으며, 경영체제 및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2022년 1월 '30년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TF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인사·조직, 노무관리, 보수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정채용 및 채용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등 채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재정공제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평가의 근간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내부경영성과 평가제도' 및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2022.11.07.)



2년 지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서(2023.06.01.)

적 보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개편하고,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이루었다.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별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본부별 특화교육'을 운영하면서 공제사업, 자산운용, 회계통계, 옥외광고, 투자분석 등 5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정공제회의 조직체계 속에서 임직원들이 각 사업 분야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재정공제회 주요 사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재정공제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사업별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 제언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재정공제회의 노하우와 경험을 국내 및 세계 곳곳에 전수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

핵심사업의 고도화, 조직문화 및 경영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 재정공제회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갔다.

재정공제회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2년 12월 2일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지방재정 제도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학술 중심의 컨퍼런스이다. 재정공제회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정책과 관련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2022.12.02.)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이어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22일부터 24일 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KSA(독일 지방자치단체 공영보험사)와 MOU를 체결했다. 재정공제회와 유사한 사업모델을 지닌 KSA와의 MOU는 글로벌 무대에서 공제사업 부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12월에는 '한·아세안 지적재산 공유·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산 공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이 지역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 노하우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국제학술회의, 아세안 국가 현장 시찰 등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적재산 공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2024년 3월에는 'Pre-PSIC(공공부문 국제컨퍼런스) 2024'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각 분야별 학회와 공제회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아세안 국가에 공유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도모했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사회적 자본, 지방자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적인 지적재산의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재정공제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과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운영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10여 개 유관학회들은 매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정책적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새롭게 조명했으며, 그 성과물을 해마다 책으로 발간해 배포했다. 이 포럼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의체, 관계 언론 등이 모여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공제회는 포럼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ESG경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재정공제회는 2023년 12월 '사회공헌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외 소외계층 지원과 국내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에는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에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목표와 함께 재정공제회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재정공제회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및 지역개발에 기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행복두끼 업무협약식
(2023.12.22.)



화재취약 주거지역 소방안전시설물품 전달식
(2024.04.03.)



Robert D. Putnam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 FINANCE ASSOCIATION

제 1 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1st International Triennial Conference on Local Finance



제 1 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1st International Triennial Conference on Local Finance

In-Jae Lee
Chairman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Theme Story

Chapter 1

함께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Culture-Change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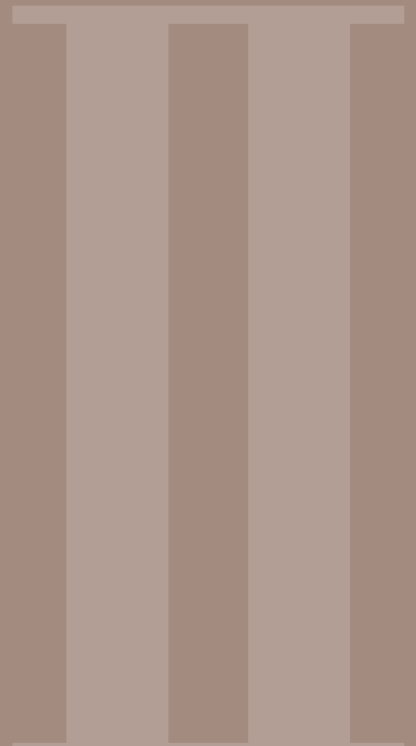
조직의 성장과 발전
Growth and Development

Chapter 3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향한 발걸음
Globalization

Chapter 4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
Sustainability



Chapter 1

함께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Culture-Change

사람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은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서로 배려하는 조직, 긴밀한 소통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공정한 인사·합리적 보수가 실현되며, 우수 인재들이 맘껏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조직을 향해 재정공제회는 Culture-change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신나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1 /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운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발족

재정공제회는 지난 10년간 옥외광고센터, 지방회계통계본부, 지방투자분석센터, 지역활력지원단, 광역센터 등 다양한 사업 확장에 따른 대규모 조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원 규모가 144명에서 186명으로 약 30%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인사적체 문제, 세대 간 소통, 그리고 성과지향적 문화로의 전환 필요성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다양한 사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21년 5월 '재정공제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경영관리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전사적 추진 기구인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다.

TF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라는 큰 목표하에 다양한 임직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 함께 재정공제회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발대식(2022.01.19.)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

재정공제회는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의 혁신활동을 기반으로 2022년 5월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개선(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재정공제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무자급의 근로의욕 고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등 3대 경영 전략과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세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일반직 실무자급(4~6급)의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이었다. 조직 규모의 확대로 신규 입사자가 대폭 증가('20년~'22년 : 50명, 정원의 약 28%)하였으며, 정원 구조상 하위직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인사 적체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자급의 근로의욕 고취는 재정공제회 생산성 제고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연구직은 4~6급 정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반직은 5~6급 정원만 통합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정공제회는 근로의욕 고취와 일관된 기준 도입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직 4~6급을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예측가능한 승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통합정원 운영과 연계하여 실무자급의 승진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승진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자급에게는 성과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경험 축적을 장려하였다. 관리자급의 경우, 서류합기법(In-Basket), 역할수행(Role-Play) 등 객관적 기법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관리자급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성과 외에 전문성, 리더십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발탁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능력에 기반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정책개발 전문기관에 부합하는 승진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광역센터 활성화였다. 광역센터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기여도에 따른 센터직원 보상 및 순환근무제도 정착을 추진했다. 이는 센터직원의 현장근무 경험을 우대하여 향후 중점사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광역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부 직원 중 광역센터와 시도지부에 지원한 순환근무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

른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인사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순환 근무 독려를 통해 공제사업 부문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직급별 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이었다. 재정공제회는 보수체계에 있어 그동안 전 직원에게 동일한 연봉인상률(처우개선율)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상급자와 하급자간 보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상후하박형 보수체계가 고착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TF는 직급간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자급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후상박식 직급별 차등 적용을 통해 보수격차를 완화하였다.



실무자 역량평가 교육

제도개선 사항 반영,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의 진정한 의의

재정공제회는 2022년 5월 수립된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 개선(안)의 3대 전략과제와 4대 세부 핵심 실행과제를 빠르게 실행해 나갔다. 2022년 일반직 실무자급 정원통합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2023년 상반기에는 능력 기반 승진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자급 역량평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광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종합근무평정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상위 직급의 희생과 배려로 하후상박식 처우개선 적용을 완료하였다. 재정공제회의 이러한 제도혁신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체계를 발족하고 재정공제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제고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2 / ‘성과’와 ‘인간중심 경영’의 균형을 통한 조직문화 재정립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강화로 조직문화 전환

재정공제회는 매년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측정하여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종합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성과평가, 교육·보안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회원들의 요청에 따른 재정공제회의 역할 확대와 업무의 다양성 증대로 기존의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제도를 개정해 반영했다. 이는 재정공제회의 정기 승진 인사가 상·하반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성과 반영의 적시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 과제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후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합리적 보상’이라는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재정공제회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타 기관의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현 재정공제회의 상황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발굴해 나갔다. 그 결과, 재정공제회의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공정화’와 ‘개인화’로 분석되었다. ‘공정화’는 평가자의 관대화 또는 가혹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평균일치법과 평균-표준편차일치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공제회의 조직단위별 인적 구성이 다양해 오히려 ‘공정화’가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개인화’는 타 기관 대비 성과평가에서 부서 성과평가 비중이 낮고 성과지표 설정 시 개인별로 지표가 세분되어 있어 문제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첫 번째로 ‘공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수 부여’ 방식의 평가를 ‘등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다각화되는 사업환경에서 ‘공정화’로 인한 결과의 왜곡 문제를 차단하는 동시에 조직의 유연한 운영방향을 유지했다.

두 번째로 ‘개인화’되는 재정공제회의 조직문화를 전환하고 구성원에게 One-Team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성과평가에서 부서 성과평가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무분별한 개인별 지표 설정이 아닌 객관적·복합적 지표 설정으로 성과의 계량적 효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직원들에게 부서의 성과지표는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공했다.

이와 별개로, 평가과정 중 비대해진 평가제도를 간결화하고 평가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평가자인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각자의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전환은 경영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는 것과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국을 통한 조합원 총회 투표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는 제도개편 방향과 도입 시기 등을 확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새로이 개편된 평가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과평가 계량실적 점검 회의

인간중심 경영 기반의 다면평가 개선으로 균형감 확보

재정공제회는 ‘성과중심’의 종합근무성적평정제도 개편에 따라 조직문화가 자칫 성과 일변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평가이자 상향평가인 다면평가 개선으로 균형감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부서장과 부서원으로 나뉘어지는 다면평가 평가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다면평가를 개선하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강화했다.

그동안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인사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다면평가 제도개선에 앞서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된 직원

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또한 타 기관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다면평가 평가문항의 적절성과 재정공제회 특성에 맞는 질문인지를 교차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 평가는 리더십 역량에 더욱 집중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부서원 평가는 협동성에 집중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One-team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처럼 경영진이 다면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업무성과 못지않게 인성 측면을 강조한 ‘인간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공제회는 앞으로도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제도와 인간중심 경영의 다면평가를 통해 조직문화의 균형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량항목	세부역량	정의
공통 역량	사업 및 규정 이해	자신의 부서는 기본이고 공제회 전체의 내·외부환경과 사업방향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반 규정을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역량
	윤리의식	공제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에 기준하여 행동하는 역량
	고객만족	업무와 관련된 내부 고객(구성원)이나 외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업무 결과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역량
	의사소통	상대의 표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의사소통 채널 및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능력 상대방의 의사를 경청하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역량
	전문성 추구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식적, 절차적인 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신 지식이나 정보를 더욱 흡수하고 개발해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량

〈역량(다면)평가 평가항목〉

관리자급 역량평가 도입을 통한 조직 내 일하는 문화 확산

재정공제회는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TF에서 도출한 관리자급 역량평가 계획에 따라 우수인재 발탁 및 조직 운영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관리자급(3급 이상) 승진인사 시 관리자급 역량 및 리더십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팀장·부서장을 발탁함으로써 조직 내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관리자급 역량확보 여부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역량강화 동기를



관리자급 역량평가 교육

부여하고, 실무자가 본받고 싶은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품격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방식의 인사제도를 운영해 온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개발센터, 역량평가 전문기관의 자문 및 협력을 통해 '구조적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했다. 단편적인 지식 학습, 암기 방식의 평가를 지양하고 실무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선진 역량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제도 시행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 평가기법 적용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평가기법 확대·적용을 검토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문제 출제·관리를 위탁했다. 초급관리자의 경우 서류합기법, 부서장급의 경우 서류합기법과 역할수행을 통한 역량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공제회는 승진 후보자의 역량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후보자 직급 전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기회를 부여했다. 이 교육은 문제사례 제시 후 해결 과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육과정에 모의평가를 포함하여 현실감있는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역량평가 대상은 역량교육 대상과 동일하게 승진 후보자 직급 전원이었으며, 역량평가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재정공제회는 2022년 11월 이후 매년 반기별 1번씩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관리자급 역량평가는 객관적 Tool을 통해 핵심역량을 계량화하고, 이를 인사제도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 채용 고도화를 통한 직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증진

공정하고 고도화 된 채용 절차 진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재정공제회는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도 추가로 11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이러한 신규 채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공정채용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년세대에 있어 채용은 사회에 진입하는 첫걸음이며, 공정한 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대외환경에 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정채용 및 채용제도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정공제회는 우선 직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채용공고문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채용 대행업체 선정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 시 경력기간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응시자 전원의 시험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시행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필기시험 과목 수를 확대하여 채용 시험의 변별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수인재 확보에 힘썼다.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2022.01.01.)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공제회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2024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불공정 채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정기 채용감사에서도 무결점 채용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재정공제회의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공공기관에게 공정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공정성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재정공제회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신입직원 채용서류 점검



필기전형 감독관 교육

인재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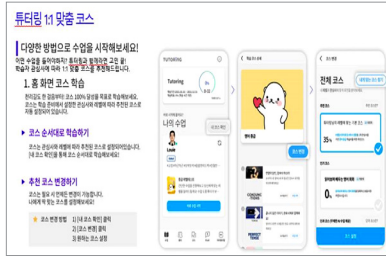
재정공제회는 임직원이 각자가 맡은 직무나 직급·지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재정공제회는 기본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 소양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윤리의식 및 고객중심 교육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지위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소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 연간 학습목표 시간을 40~60시간으로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이 역량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교육 과정은 기본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 소양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윤리의식 및 고객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직무 관련 전문자격증 강의 및 응시비 지원 등 취득을 지원하고 기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운영하던 외국어 교육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에 외국인 강사를 사내에서 초빙해 대면 회화

교육을 진행하여 외국어 관련 역량도 대폭 끌어올렸다. 이는 내부적으로 역량과 소양을 쌓고 외부적으로 글로벌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추진방향에서 비롯된 체계였다.



신입직원 맞춤 교육(2023.11.09.)



사내 글로벌 어학 교육 프로그램

2023년부터 임직원의 최신트렌드 파악 및 소양 함양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을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최신 사회 이슈 및 트렌드 파악을 통한 임직원의 인사이트를 제고하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업체 활용 및 수요맞춤 강사 선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에 높은 교육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본부별로 다양한 특화교육 및 자체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으며, 본부별 특화교육의 경우 외부 강사진이 아닌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교육 주체가 스스로 전문성을 내재화하고 보유 지식을 예비 실무자와 공유하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였다. 자체 인력 POOL은 해당 업무에 대한 잠재적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통해 미리 구성하고,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 세미나, 프로젝트, 강의 등 다양한 경험을 미리 제공하여 적응력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 제도는 직무 순환제도를 운영 중인 재정공제회에 알맞은 직무별 예비 인력을 폭넓게 육성하고, 희망직무를 반영한 경력 경로를 수립하여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재정공제회는 고도화된 채용 절차와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키우며, 재정공제회인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회차	강의주제	강연자
1	憲法國家(헌법국가)	정종섭(한국국학진흥원 원장)
2	불굴의 도전 정신	엄홍길(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3	Chat GTP의 시대, 디지털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김상윤(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4	미래사회의 소통	김경일(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5	시대에보(해개인의 시대)	송길영(바이브 컴퍼니 부사장)
6	창의적인 리더의 뇌에서 삶의 성찰을 얻다	정재승(카이스트 뇌인지학과 교수)
7	인공지능과 수학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	강명주(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8	생태전 전환 : 기후변화와 인간멸종 위기	최재천(이화여대 예코과학부 교수)

〈명사초청 특강 운영 내역〉



명사초청 특강

4 / 신나고 행복한 직장 : 사회적 약자 배려와 상호 존중 문화

존중과 배려를 위한 갑질문화 근절 노력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모든 산하기관에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갑질 근절 교육 강화와 신고 시스템 정비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반기별로 ‘갑질 발생 위험 유형별 진단’을 실시하여 갑질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2021년 11월에는 소모임별로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모임에는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전사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며,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했다. 이와 함께 가장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갑질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는 ‘갑질 피해 상담·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이 센터에서는 외부 전문 상담사 및 법무·노무 전문가와 연계하여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비위 사실 확인 시 상담자의 동의하에 즉각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에 사건처리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소모임 활동 및 우수사례 시상식



청렴·인권 자키회(2023.07.26.)



청렴·인권 감시단(2023.03.17.)

또한,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바람직한 반부패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반부패·청렴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재정공제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중심의 교육과 ‘갑질 금지’ 조항을 포함한 조직 내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23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반부패 활동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갑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감사실 청백리 문화탐방(2022.11.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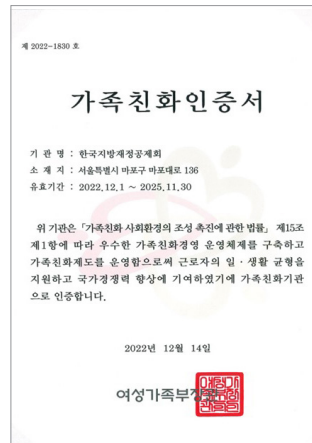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의 조성

재정공제회는 근무형태의 패러다임 변화와 직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2014년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이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출퇴근이나 근무시간뿐 아니라 근무 장소를 조정하여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무여건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재택근무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다.

재정공제회는 재택근무에 대한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현재까지도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유선 화상회의 등을 통한 협업을 확대했으며,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재정공제회의 재택근무제는 일반직원이 한 달에 2번,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 및 출산가정,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4번 사용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배려를 강조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One-Stop 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며, 육아기 단축근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 사용 부서에는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하여 파견함으로써 부서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사용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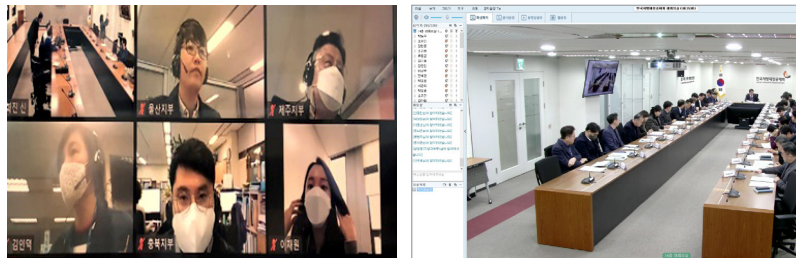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워라벨 실천기업 선정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재정공제회는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최초로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관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 조직문화 창출

재정공제회는 2021년 최고경영자와 직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14층 대회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서면보고 위주로 이루어졌던 주간업무 및 월간업무 회의와 달리 전 부서의 부장이 최고경영자와 매주 월요일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했고, 부서원들은 화상회의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이 힘들었던 광역센터와 지부가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전사적인 업무공유와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열린 조직문화가 구축되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와 회의가 끝난 후 전 임직원이 분위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 그룹웨어와 회관 내 승강기 디스플레이에 관련 사진과 회의록 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활성화

동호회 활성화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재정공제회는 직원 간의 업무 외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해지고 신규직원 증가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화목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2021년부터는 MZ세대 신입사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니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조직을 조성하기 위해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NO	동호회명
1	팔도연구회(공제연구)
2	핑핑풍풍일구야(탁구)
3	문화&기행(답사)
4	동그라미 철학(당구)
5	A.A.A(All About Activity, 보드게임)
6	배드민턴
7	아트&페어(전시회)
8	연극과 뮤지컬

〈사내 동호회 현황〉

NO	동호회명
9	CTCT(Camping Trecking Climbing Together, 캠핑)
10	무산소 같은 너(헬스)
11	스덕모(종합 스포츠)
12	Flower Arrangement(꽃꽂이)
13	마음의 풍경(식물조경)
14	빵야빵야(베이킹)
15	공4단(풋살)



A.A.A 액티비티 동호회



마음의 풍경 식물 동호회



공사단 축구 동호회



빵야빵야 베이킹 동호회



문화&기행 답사 동호회



Flower Arrangement 꽃꽂이 동호회

동호회 활동 지원은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동호회의 날'을 제정하여 업무와 별개로 동호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재정공제회는 1인 1동호회를 원칙으로 하여 동호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동호회 참여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5개에 불과했던 동호회는 2024년 기준 16개로 증가했으며, 동호회 활동은 직원들의 워라밸과 화목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사 간 소통으로 이룩한 상생의 노사문화

재정공제회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노사 공동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했다. 재정공제회와 노동조합은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임직원 만족도 향상과 기업의 비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생산적 토론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 출범한 재정공제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1년 단위의 임금협약과 2년 단위로



제4기 노동조합 출범식

시행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협의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조건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또는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 경영진과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함으로써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했다.

특히 2021년 이후 들어 재정공제회 노사는 비금전성 복리후생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회사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포인트 등 일부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복지제도를 효율화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산업시찰' 제도, 일-가정 양립 향상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협약' 등을 공동으로 결의하는 등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 노사 단체(보충)협약 체결식(2024.04.30.)



Chapter 2

조직의 성장과 발전

Growth and Development

지방재정공제회는 다양한 신사업 도입과 조직 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재정적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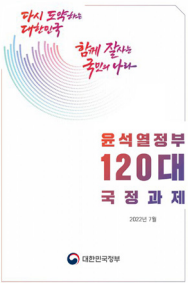
1 /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조직의 신설과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신사업 도입과 조직 신설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으로 공제사업, 회원지원사업, 지방회계통계사업, 지역활력지원사업, 타당성조사사업, 옥외광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 재정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지역활력지원단, 지방투자분석센터, 광역센터 조직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역활력지원단에서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으로 배분·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 4대 광역센터와 17개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핵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체계와 연계해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소방청)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 소통 · 협력 강화(행안부)
	[약속22]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 행안부)

〈정부 국정과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위한 ‘지방투자분석센터’ 신설

재정공제회는 2021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에는 1센터 2부로 구성된 ‘지방투자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새롭게 설립했다. 투자분석센터는 지방재정조사부와 재정투자평가부를 두었으며, 각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4명으로 출발하였다.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국민 편익을 높이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과도한 재정투입 등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와 컨설팅은 물론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및 경제체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이사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편재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지방투자분석센터 개소식(2022.02.17.)

타당성조사사업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합니다.

• 타당성조사



개념 투자심사 사전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조사하여 분석하는 절차

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투자심사 이전)

방법 사업계획 검토→기초자료 분석→쟁점 도출→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정책적 분석→종합결론

• 조사지침연구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 개발 및 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침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 공공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침연구

• 제도개선연구



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연구진 및 전문기관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및 개발 연구를 수행합니다.

※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등

• 교육 및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투자사업에 대한 정기(분기별 1회) 수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 및 결과, 투자심사 자료 및 의뢰서 작성 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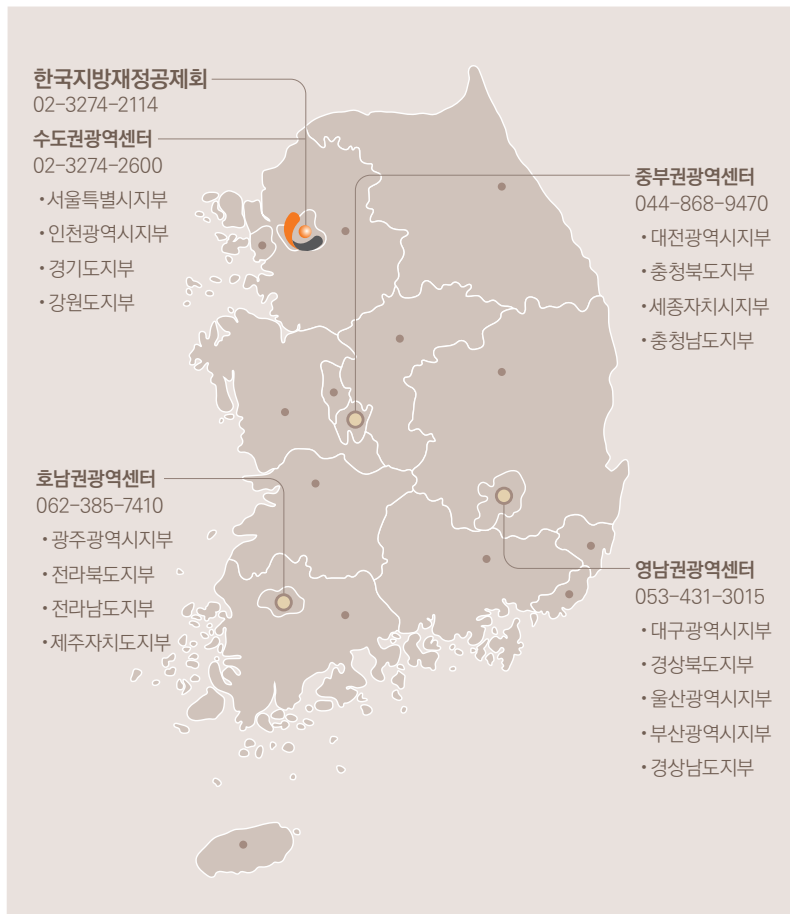
• 투자사업 정보관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단계별 사업정보를 DB화하여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 및 관리합니다.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광역센터' 출범

재정공제회는 2008년 정관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의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에 시도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공제회 직원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시도지부는 지부장(행정 부시장·부지사), 부지부장(공유재산담당실·국장), 간사(공유재산담당과장) 그리고 사무국장(재정공제회 상근직원)으로 구성된다. 2016년에는 등록 물건과 사고 건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지부의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7개 시도지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4개 권역별 광역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역센터 및 시도지부

4개 광역센터는 수도권(서울, 2022. 3. 11.), 영남권(대구, 2022. 3. 17.), 중부권(세종, 2022. 3. 23.), 호남권(광주, 2022. 3. 30.)의 각 거점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되어 시도지부에 대한 안정적 업무 지원과 회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방재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센터 현판식(2022.03.11.)



영남권광역센터 현판식(2022.03.17.)

광역센터 출범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신속하게 청취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본부, 광역센터 및 시·도지부 간의 소통을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함으로써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7개 시도지부의 운영체계를 광역센터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공제사업을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4대 광역센터는 미래의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공제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중부권광역센터 주최 전국광역센터 연찬회
(2022.11.22.)



호남권광역센터 공제업무 담당자 집합교육
(2023.12.08.)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지원단’ 출범

4대 권역별 광역센터의 출범에 이어 2022년 6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위

탁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의 난제에 대응해 지역의 생기를 되찾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 지역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집행 될 예정이다.

지역활력지원단은 소멸기금관리부, 소멸기금운영부, 상생발전기금부 등 총 3개 부서에 17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업무뿐만 아니라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정공제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기금이 꼭 필요한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와 효율적 성과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방인구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활력지원단’의 출범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활력지원단개소 및 현판식(2022.06.30.)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심의위원회
(2022.08.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2023.12.19.)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현장방문(2023.08.16.)

2 / 미래 도약을 위한 공제사업 혁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공제사업 확장

재정공제회의 공제사업은 1964년 재해로 인한 공유재산 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민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면서 다양화되고, 사업 규모 역시 크게 확장되었다.

1983년 기 조성된 공제적립금을 기반으로 ‘공공청사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노후된 공공청사 등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의 개선을 지원하였고, 1994년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관공선의 침몰이나 충돌 등 피해발생 시 복구비용 혹은 재건축 비용을 지급하는 ‘지방관공선재해복구 공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해상 위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1999년에는 ‘영조물 배상공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민원업무 수행 시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배상하고자 ‘업무배상공제사업’을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는 이·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해 ‘단체상해공제사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이·통장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했으며, 2013년에는 행정종합 배상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하락을 방어하고,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안전망 강화와 연계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시민안

전공제사업'을 도입하여 보상함으로써 정부의 선진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던 공제사업은 2021년 공제사업 제도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 더욱 고도화되었다. 재해나 사고 이후의 사후적 보상을 넘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 위험관리 컨설팅, 중대재해 컨설팅, BCMS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사업'을 도입하였다.

재정공제회는 이와 같이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니즈를 파악하고, 시기 적절한 사업 다각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 차원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공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위험관리 컨설팅 현장실사



포항야구장 위험관리 컨설팅 현장실사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회원 현장방문



특수건물 화재예방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컨설팅 최종보고회

재해복구공제사업

공유재산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공제등록물건에 재해 발생 시, 저렴한 회비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보험보다 유리한 운영조건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합니다.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재해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해상보험 대비 저렴한 비용부담과 복구비 확대 지급 등 지방관공선 유지·관리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합니다.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년도	재해복구공제회비		재해복구공제금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973,204	11,440	271,654
1994~2009	2,455,841	179,059	2,848	37,949
2010	74,931	28,380	350	6,714
2011	77,455	36,337	239	14,822
2012	81,525	39,270	1,889	18,599
2013	86,734	42,206	777	25,626
2014	91,801	46,290	260	9,502
2015	98,088	49,309	172	8,721
2016	105,612	50,419	414	7,650
2017	114,162	54,262	578	11,308
2018	108,213	62,176	336	19,491
2019	137,061	69,229	422	21,068
2020	119,918	72,542	893	16,270
2021	122,787	77,455	1,067	25,168
2022	127,101	80,110	611	21,401
2023	132,185	86,160	584	27,365

〈재해복구공제사업 회비수납 및 공제금 지급현황〉

손해배상공제사업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와 행정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영조물배상 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업무배상 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의 책임 강화를 지원합니다.

(단위 : 건, 백만 원)

년도	구분	배상공제회비		배상공제금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731,332	155,089	316,965
1999~2009		376,593	74,757	21,784	35,275
2010		120,528	18,625	6,804	11,055
2011		142,004	23,737	6,390	12,050
2012		164,390	28,283	6,435	14,041
2013		177,538	31,599	8,227	14,725
2014		198,735	37,063	7,114	14,630
2015		224,253	36,944	7,372	15,653
2016		248,461	43,202	8,365	9,791
2017		276,734	48,400	9,714	17,786
2018		302,924	55,660	13,273	24,520
2019		341,219	67,085	13,356	28,203
2020		363,392	74,504	14,021	39,464
2021		399,582	93,548	15,214	39,930
2022		430,840	97,973	17,020	39,842
2023		464,535	109,625	12,205	30,211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비수납 및 공제금 지급현황>

미래 도약을 위한 공제사업 혁신과 성과

재정공제회는 2022년을 맞이하여 ‘미래 30년 도약을 위한 공제사업 혁신 발 전방안’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혁신을 위한 공제업무 TF’를 구성했다. TF는 산·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제업무와 관련된 17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험관리, 디지털 혁신, 신규사업, 창의제안 등 4개 분야별로 연구반을 설치·운영했다. 이어 각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 및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전략을 수립했다.

- ▲ 공제사업 위험평가 및 관리역량 강화, ▲ 디지털혁신으로 고객편의성 제고,
- ▲ 신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제사업 본연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 ▲ 공제사업 연계 회원서비스 강화



업무혁신을 위한 공제사업연구 TF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공제사업 혁신을 추진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공제사업별 재보험 전략 수립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의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시스템(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으며, 국제표준인증(ISO 22301)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업무시스템 개편으로 내부직원의 업무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회원포털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공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만 4,000건이었던 접속 건수는 2022년 3만 4,000건으로 70% 증가했으며, 회원포털 가입단체 수도 같은 기간 143개에서 188개로 30%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완성토목공사물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신사업 도입을 통



국제표준인증(ISO 22301)

문화일보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012면 전국

지방재정공제회 ‘업무 복구 시스템’ 국제 인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이인재)는 공제사업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제기관 중 최초이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인증인 ‘ISO22301’을 받았다(사진)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최초 ISO 22301 국제표준인증 취득(문화일보)

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5대 전략에 따른 혁신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공제사업 제도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공제사업이 당면한 현안들과 4대 광역센터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정부 및 내부 협의를 거쳐 직무수당 도입과 성과체계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 및 소통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했다.



공제사업안내자료



2023년 공제사업 제도혁신 워크숍(2023.05.11.)

‘시민안전공제사업’의 제도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 중심의 제도혁신에 주목했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민안전공제 상품개발 TF’의 발족은 제도혁신을 위한 대표적 전략 중 하나였다.

재정공제회는 제도혁신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시민안전공제사업’이 보상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안전공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피해 보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재정공제회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안전공제 상품개발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사망담보’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공제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세 번째 전략으로, 공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다양성과 차별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유독성 물질 사망, 물놀이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 자전거 상해사망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거나 민간 영역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장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대상에게 맞춤형 공제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재정공제회는 2023년까지 총 8,600여 건, 534억 원에 달하는 공제금을 지급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으로

인한 보상이 증가하여 239억 원을 지급하는 등 공제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더 나아가 2023년에는 손해보상 범위를 자연재난 등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유형의 사회재난까지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정공제회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다.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험관리 전문컨설팅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의 도입

재정공제회는 재해와 배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과 중대재해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화재, 풍수해 등 대형 재난과 국민의 안전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에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유재산 위험관리 컨설팅의 경우, 주민의 밀집도가 높아 사고 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26개의 특수건물 유형별로 264개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설물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117건의 위험경감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대비 2023년의 재해사고 건수가 31% 감소하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가 지역사회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유재산 위험관리 컨설팅 결과보고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시범 도입했다.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컨설팅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더 나아가 재정공제회는 2023년 중대재해 컨설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안내 브로셔

특히 중대재해 컨설팅의 목적인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위험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책임범위가 광범위하고 사고통제가 어려워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후 대비방안이 될 수 있는 공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고, 중대재해 관련 민사상·징벌적 배상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력 마련 및 연속적인 업무활동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위험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3 / 지방재정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과

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재정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성을 구축해 왔다. 2017년 2월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공유재산 수탁기관, 2019년 5월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지방재정 전문기관의 입지를 굳혀왔다. 특히 2021년 6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을 개소했다. 이어 2022년 6월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지역활력지원단을 개소함으로써 기금운용 전문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참여해 국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돕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발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화된 전문 교육을 실행한다.

재정공제회는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에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투자분석센터 자문위원회(2023.04.06.)



지방재정 정책연구를 통한 정부 정책결정 지원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지방회계, 지방계약, 공유재산, 재정관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정책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세미나, 포럼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신설하여 3개년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이 포럼은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방재정 정책 연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효용성 높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분석’, ‘계약 민원사례 DB 구축’, ‘공유재산 개선을 위한 실무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실제 정책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재정발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재정자주도 목표 설정과 추진방안’,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지원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3년 역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재무분석 지표의 개선 방안’, ‘재정분권 효과 및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 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처럼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정책적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2022.10.20.)



지방재정제도 발전세미나(2024.04.12.)

환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지원

재정공제회의 컨설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했다. 이 사업은 재무지표 분석 컨설팅을 시작으로 회계통계, 지방계약, 공유재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특히 컨설팅 서비스의 평균 만족도는 98.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 이 결과는 재정공제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지방재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정공제회가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재무지표 분석 컨설팅은 예산과 결산이 연
계된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강화에 기여했다.

둘째, 통계작성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지방재정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재정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다.

셋째,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은 한국공인회계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세수 부족, 물가상승 상황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요금체계 및 공공요금의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23년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보고서

넷째, 2022년에는 회계처리의 사전검토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여 회계기간 중 잘못된 복식부기 회계 처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의 정확성과 재정 통계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중의 회계처리 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계약 컨설팅은 3-Step의 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계약제도 해설과 사례를 교육하고, 2단계 홈페이지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연간 210건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3단계 라이브 컨설팅 운영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입찰방식이나 물품·공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라이브 컨설팅에 509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김천시, 광양시)

여섯째, 공유재산 컨설팅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온라인 자문 및 컨설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실태조사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4억 원을 보조함으로써 총 4만 1,332 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온라인 자문 및 컨설팅의 경우, 2018년부터 홈페이지 업무정보방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질의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까지 약 5,000건 이상의 질의답변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질의답변 데이터를 공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정보 공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위탁관리 경쟁력

저렴한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최소화 - 공제회 회원 차원의 저렴한 위탁관리 수수료 적용 -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탁관리 법정수수료의 최저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스마트 정보시스템	• e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활용 - 지방자치단체 새시스템과 공제회 재산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DB 관리로 효율성 제고 - GIS 및 모바일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공동 이용으로 스마트 재산관리 가능
체계적 지역 조직망	• 광역센터 책임 기반의 위탁관리로 현장 접근성 강화 - 전국 4개 권역 광역센터 및 17개 시도지부 운영으로 지역 인접 광역센터에서 신속한 위탁관리 업무수행 가능 - 본부는 정책·기획 중심, 광역센터는 위탁관리 현장실무 수행(재산 DB 관리, 현장조사, 대부 변상금 등)
실태조사 인센티브	• 위탁관리 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혜택 -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태조사 무상 지원 * 1년차 일반재산, 2~3년차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재산 등) - 공유재산 안전점검 유상지원(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전문 컨설팅	• 홈페이지 「업무정보방」 컨설팅 운영 - 업무정보방 운영으로 실시간 컨설팅 가능 - 지방자치단체 질의사항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상시 지원
실무교육 지원	• 온·오프라인 실무교육 지원으로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공유재산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오프라인 교육: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
네트워크 운영	•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공유재산 정부정책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개선 연구, 법령 개정 TF 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등 정책활동 지원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시상식(2023.12.27.)

이처럼 재정공제회의 다양한 전문 컨설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발전과 공유재산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받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혁신

지방교육은 지방재정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교육 방식과 주제를 아우르는 회원 중심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2016년) 이후 집합교육, 현장교육,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2017년) 및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2019년) 이후에는 교육 커리큘럼 정비, 교육과정 개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코로나 이후에는 급변하는 외부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신규로 개발하였고, 현재 지방회계 온라인 교육원을 통해 이러닝 4개 과정 및 마이크로러닝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 제공과 온라인 교육의 편리성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2021년 2,184명이었던 교육 이



군산시 찾아가는 현장교육(2023.06.01.)



공유재산 실무과정 집합교육(2024.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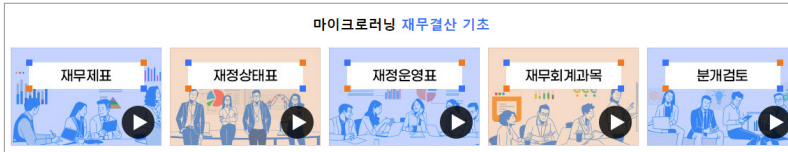
수자는 2022년 2,457명, 2023년 2,88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친화적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활성화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자치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지방교육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지방재정 관리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방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마이크로러닝 교육

4 / 종합관리체계 기반의 회원지원사업 확대

새로운 목표, 2030년 회원지원 총액 1,000억 원

재정공제회는 2021년 회원 니즈에 기반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회원지원 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회원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회원지원의 범위와 분류를 재정립하고 2030년까지 회원지원사업비 1,0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및 회원지원사업의 범위를 새롭게 정립했다. 기존의 사업 범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역 주민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ESG 경영의 ‘Social’ 측면과 연계하여 회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것이었다.

둘째, 회원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약 50여 개에 달하던 기존의 단위 사업을 재정지원사업, 정책지원사업, 전문지원사업 등 3개의 주요 사업 및 9개 분야로 재편하고, 각각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셋째, 새로운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30년 회원지원사업비 1,0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재정공제회의 기본 이념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를 위해 회원지원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이처럼 회원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재정공제회가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또한 단순히 재정적 성과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지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원지원 확대에 따른 큰 폭의 회원지원사업비 증가

재정공제회의 회원지원 총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52억 원 수준이었던 회원지원 총액은 2021년 495억, 2023년 608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2030년 1,000억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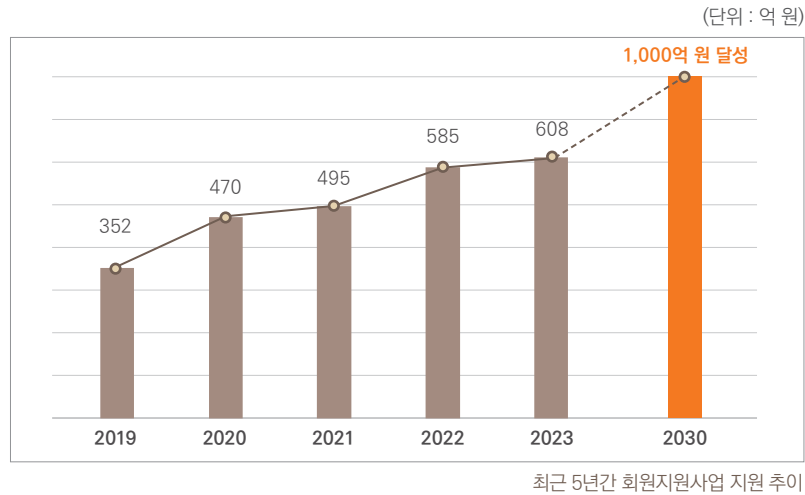
회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은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사업, 정책지원사업, 전문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회원지원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강원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식
(2023.05.03.)



전북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식
(2023.10.05.)



재정지원사업(무상)은 특별재난지역재정지원, 공유재산관리 교육비 지원,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연간 총 1억 원 이내로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10억 원에 달하는 재해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35개 지방자치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신속한 재난복구를 도왔으며,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유자)은 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지방관공선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안정적인 유자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용자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4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최대 수준이다.

또한, 회원 니즈에 기반한 유형별 전문 컨설팅을 확대한 것도 주요했다. 재정공제회는 재정, 회계, 계약, 재산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현장방문 전문 컨설팅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형별 전문 컨설팅의 수행 건수가 2021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재정공제회는 회원지원 총액의 지속적인 확대와 실적 향상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예방 및 재정지원사업(무상)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 공유재산 및 재난·안전관리 실무교육비, 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에 대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비 지원사업



공유재산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법정 의무 검사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공유 재산관리에 재해예방 및 재정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단위 : 개, 백만 원)

연도	회원	지원금
합계	232	11,027
2012	45	1,335
2013	7	206
2014	7	282
2016	10	535
2017	4	300
2018	9	449
2019	14	782
2020	77	3,750
2021	5	311
2022	19	1,076
2023	35	2,001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2015년 해당사항 없음〉

연도	선박수	지원금
합계	881	373
2013	41	23
2014	43	23
2015	50	30
2016	103	31
2017	108	39
2018	87	42
2019	73	27
2020	90	24
2021	76	31
2022	107	48
2023	103	55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금〉

재정지원사업(융자사업)

지역개발·공공청사정비·지방관공선 건조비에 대해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한은 기준금리+0.5%p ≤ 2.5%,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023년 배정액, 단위 : 건, 백만원)

자치단체	사업명	배정액	자치단체	사업명	배정액
인천본청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	16,500	대전본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8,000
인천중구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600	경남창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10,000
부산본청	중앙대로 확장 등 3건	37,800	경남김해	김해 운동장 건립	16,000
대구본청	지방채 차환	23,600	제주본청	장기미집행 아연로 도로확장 등	12,500
광주본청	지방채 차환	8,000	합 계		144,000

〈지역개발지원금 배정현황〉

·공공청사정비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청사 정비 및 행정기능의 확대를 지방청사 신 증축의 필요성에 따라 198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지방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한은 기준금리+0.5%p ≤ 2.5%,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	구분	건수	배정액	포기액	지급액
	합계	2,670	1,774,492	156,859	1,617,633
1983~2009		2,533	1,393,282	113,623	1,279,659
2010		24	88,100	10,100	78,000
2011		16	27,493	2,000	25,493
2012		25	92,950	3,436	89,514
2013		17	45,617	8,900	36,717
2014		14	38,050	6,500	31,550
2015		18	29,700	9,300	20,400
2016		3	3,000	1,000	2,000
2017		1	1,000	0	1,000
2018		1	1,000	1,000	0
2019		3	11,000	1,000	10,000
2020		2	2,000	0	2,000
2021		10	33,900	0	33,900
2022		2	5,900	0	5,900
2023		1	1,500	0	1,500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배정현황〉

Chapter 3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향한 발걸음

Globalization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국내 지방재정 분야를 이끌며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수립하고, 'Globalization'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향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 세계를 향한 첫걸음,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와 의미

재정공제회는 2021년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2030 비전을 선포했다. 국내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에서 세계적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선진 지방재정 제도를 공유하고 아세안(ASEAN) 등 인근 국가 대상 지원·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 중심의 컨퍼런스인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를 기획했다.

새로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것은 재정공제회가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재정공제회는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퍼런스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는 재정공제회가 세계적 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국제 컨퍼런스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상된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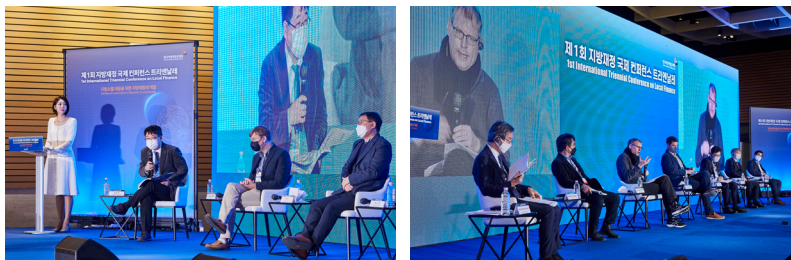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2022.12.02.)

행사를 준비하면서 임직원과 기관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등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임직원의 국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이 컨퍼런스는 지방재정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내외 석학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역할과 재정공제회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논의

2022년 12월 2일 개최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는 재정공제회 회원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오프라인 개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하이브리드형 컨퍼런스’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지방재정 분야의 석학들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인구 유출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중 주제토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2022.12.02.)

컨퍼런스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특별세션, 기조연설에 이어 공제사업, 공유재산, 옥외광고, 지방회계, 지방계약, 투자사업 등 6개의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세션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 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이어 기조연설에서는 일본 후쿠이현립대학교의 마츠바라 히로시(Matsubara Hiroshi) 특명교수가 ‘일본의 지방창생시책과 포섭적 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회의 좌장으로 참석하여 일본의 ‘지방창생교부금’ 사례와 2022년 대한민국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교·분석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야별 세션으로는 첫 번째로 보험연구원의 최창희 연구위원이 ‘새로운 30년,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보험’과 ‘공제’의 차이점을 서두로 공제회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로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여경 연구위원이 ‘지방정부의 공익적 기능 수행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에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공유재산 활용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세션인 ‘공공기관의 옥외광고 활용법’에서 WPP그룹의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는 옥외광고를 집행 시 IT기술의 과도한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 및 활용사례’라는 주제를 통해 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의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열어주었다. 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정량적이고 가격위주의 낙찰제도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낙찰제도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도쿄대학교의 후미히코 세타(Fumihiko Seta) 교수가 ‘도시 축소 대비를 위한 지방재정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환경을 고려한 도시 구조 개편을 설명하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기조연설, 특별세션 및 여섯 분야의 분야별 세션을 통해 재정공제회의 각 사업 부문에 대한 글로벌 교류를 열었다는 점에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 주요 사업의 글로벌 교류 확대

KSA와의 업무협력 강화 및 달라진 위상 확인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를 시작으로 재정공제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컨퍼런스 개최 이듬해인 2023년에는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교류 활동을 확대했다. 특히,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KSA(Kommunaler Schaden Ausgleich)’와 상호 간 정보 및 사업경험 공유, 국제 친선 교류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KSA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 1990년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57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KSA는 지방



LOFA-KSA MOU 체결(2023.06.22.)

자치단체의 손해배상보험(일반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이상 투입된 비영리법인 등 4,721개의 회원을 두고 있다.

KSA와의 MOU 체결과 함께 KSA의 회원기관인 작센(Sachsen) 주정부 사무소를 방문해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위험관리 실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유사 공제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공제금 지급처리, 만족도 및 가입방식 등의 실무적 논의도 추진했다. 또한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및 '재정공제회 창립 60주년 기념 세미나' 등 기관 간 정기적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KSA는 10년 전 재정공제회 50주년 행사에 이어 2024년 60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이다.

재정공제회가 유사한 사업모델을 지닌 KSA와 MOU를 체결한 것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한 글로벌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MOU는 2014년에 이미 체결했던 1차 MOU를 갱신한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교류해 온 KSA와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과거에는 재정공제회가 KSA의 운영 방식을 살폈다면 금번 협력 과정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공제회의 사업 구조를 KSA가 벤치마킹하는 등 달라진 역할 관계에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정공제회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었다.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와 안정적 투자성과 달성

1995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은 초기 총자산 3,229억 원, 운용자산 1,072억 원에서 출발하여, 2023년에는 총자산 18,135억 원, 운용자산 10,541억 원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운용수익률은 448%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자산 배분과 운용에 주력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은 해외 대체투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재정공제회는 이에 발맞춰 자산운용 전략의 다각화에 나섰다. 해외 대체투자는 2015년 439억 원에서 2023년 3,235억 원까지 성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조사 세미나/네덜란드
(2023.06.19.)



해외 대체투자자산 현장점검/미국 EPSON
(2023.11.15.)

장하였고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부문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피스 사옥, 벤처 펀드, 사모대출채권 등에 주요 투자가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에 813억 원, 유럽에 2,256억 원, 아시아에 16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공제회가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공제회는 해외 운용사와 협력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보유 투자자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CBX 빌딩과 다국적 제약회사 Novartis 사옥 현장실사는 임대차계약 현황 점검, 자산매각 진행 상황, 대출연장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영 에너지기업 Orsted 사옥 현장실사는 향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적 지출 투자계획 및 중장기적인 운용 전략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는 재정공제회가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을 선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재정공제회는 해외투자 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기여하며,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운용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해외 전문가 업무교류 :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옥외광고 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화로 신규 광고매체에 대한 정책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옥외광고 산업 및 정책 정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공

제회는 2014년부터 해외통신원을 선발하여 2024년 현재 총 북미, 유럽, 아시아에 걸쳐 11개국에서 해외통신원을 운영 중이다. 매년 정기간행물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월별 법령·정책연구·산업 분야 해외 리포트를 생성하고 있는 바, 2023년까지 10년간 누적 2,027건의 해외자료 DB를 구축하여 해외 현지의 실효성있는 정책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집 및 공유로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3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023년 연간보고서의 경우, 옥외광고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디지털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빔공해 방지 및 관리방안, 해외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 및 우수사례, 해외 야립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우수사례 분석 등 시의성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제작한 바 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189건	1,396건	1,649건	1,812건	2,027건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해외자료 DB구축 누적 건수〉

해외 전문가 업무교류 :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터

재정공제회는 해외 지방재정 및 회계 분야의 동향 조사를 통해 국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리포터는 해외 현지에 거주하고 현지의 사소통 및 원고 작성이 가능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지방재정·회계, 계약, 투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 관련 자격 시험 합격자, 관련 분야 경험 보유자, 조사수요 국가의 거주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터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34건	35건	36건	57건	60건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터 해외자료 연간 건수〉

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지방재정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포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시아(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등 총 11개국에서 15명의 글로벌 리포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지정 과제에 대한 원고 작성, 해외자료 수집 및 대내외 요청에 따른 원고 작성 등이다.

기존 지방회계 분야의 연구에서 2019년 지방계약 부문, 2020년 공유재산 부문, 2022년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부문을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지방재정 및 회계 조사 분야를 확대해왔다. 2023년 발간된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트’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해외 지방정부의 재무분석 지표의 활용, 지방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지방투자사업의 사후평가 제도 탐구 등 해외 우수사례와 정책 정보를 담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지방재정의 정보접근성 확대 및 글로벌 역량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해외 전문가 업무교류 : 지방재정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멸을 선점한 일본의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행정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지방소멸 억제, 지역 활력을 위한 도시계획 전략인 콤팩트 시트 정책, 시가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은 대한민국의 타당성 조사와 유사성이 있어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향후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의 정책 제언 등을 제시할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3 / 글로벌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

지역개발 분야의 글로벌 교류 확대

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과 자산운용, 지방재정·회계, 옥외광고 등 주요 사업의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관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이어 2023년에는 글로벌 교류의 범위를 지역개발 및 타당성 분석까지 확대하기 위해 ‘한·베트남 국제협력단’을 구성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지방정부에 도시개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했으며, 대한민국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이 지역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베트남 국제협력단’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역개발 공동투자 포럼’을 추진하고 현지 산업단지를 시찰했다. 베트남 하노이 건축대학교(HAU)에서 양국의 유관



한·베트남 국제학술세미나(2023.09.07.)



한·베트남 국제학술세미나(2023.09.07.)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베트남 국제학술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미나의 기조연설은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발전 및 지역개발 경험 공유로 시작되었다. 이어 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를 소개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관리제도 및 사례를 전파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 건축대학교(HAU)에서 지역개발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하노이 건축대학교, 베트남 도시계획협회(VUPDA) 및 재정공제회 간 4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4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 관련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세미나 및 연구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각종 국제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및 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베트남 국제협력단’은 베트남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에 이어 ‘대한민국의 지역개발 공공투자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지역개발 공공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재정공제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트남 지사 측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에 적용할 시사점을 모색했다.

이와 같은 재정공제회는 한·베트남 국제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해 온 타당성 분석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베트남에 전수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ASEAN) 지역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공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세계적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공유협력 추진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지적재산의 공유협력을 추진했다. 그 시작으로 한-아세안 지적재산 공유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12월 ‘한-아세안 지적재산 공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간 MOU 체결,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아세안(ASEAN) 국가 현장시찰 등을 수행했다. 2024년 1월 재정공제회는 MOU 체결과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국가 대상 사전 초청 행사를 가졌다. 재정공제회를 비롯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및 아세안(ASEAN) 외빈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업무협약 관련 사전회의, 국제 학술행사 준비 실무진 간담회, 국내 학술 인프라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2024년 3월에 추진한 MOU 체결의 의미를 공유하고 국제 학술세미나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재정공제회의 경험과 지식을 아세안(ASEAN) 국가에 지속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2024년 3월 4일에는 대한민국의 재정공제회와 인도네시아의 테르부카 대학교(Universitas Terbuka) 간 MOU를 체결했다. 본 MOU 체결은 기관 간 협력·교류방안 마련, 아세안(ASEAN) 국가 사례 공유, 선진제도 전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적재산 공유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본 MOU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지방자치, 지역개발, 지방재정, 정부회계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테르부카 대학교 MOU 체결(2024.03.04.)

한편, 재정공제회는 2024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 학술세미나(Pre-Public Sector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 국제 학술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 전문지식을 아세안(ASEAN) 국가와 공유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술적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행사에는 재정공제회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마라공과대학교(Universiti Teknologi MARA) 부속 ARI(Accounting Research Institute)연구소, 인도네시아 테르부카대학교(Universitas Terbuka),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Accountability and Social Capital in Local Finance'라는 대주제 아래 사회적 자본, 지방자치, 지역개발, 정부 회계, 지방재정 등 각 연구 분야의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재정공제회는 지속적인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적재산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술적 지적재산을 아세안(ASEAN) 국가에 전파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제학술 세미나 Pre-PSIC 개최(2024.03.04.)

4 /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류 확대

사업별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전문기관 토대 마련

재정공제회가 전문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사업별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본부별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부별 특화교육'에는 공제사업, 자산운용, 회계통계, 옥외광고, 투자분석 등 5대 본부별 직무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이 2개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육은 재정공제회의 조직체계 속에서 임직원들이 각 사업 분야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부별 특화교육'의 특징은 외부 강사진이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내 강사를 양성하여 본부별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공제회가 그동안 사업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해 왔음을 의미한다. 내부 강사를 통한 본부별 특화교육은 본부별 협력 및 융합을 이끌어내며 조직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재정공제회의 노하우와 경험을 세계 곳곳에 전수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학, 금융공학, 금융법학, 경제학, 디자인학, 언론홍보영상학 등 재정공제회 주요 사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재정공제회의 교



지방회계통계본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육훈련 프로그램이 사업별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책 제언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재정공제회는 2021년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 새 비전’을 선포하고 주요 사업의 교류를 세계 무대로 지속·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 및 교류 업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기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해외 시찰 연수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이었다. 재정공제회는 매년 ‘외국어 교육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 나갔다. 2022년부터 ‘실시간 전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외국어 교육’ 콘텐츠 수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화로 실시간 영어 공부가 가능해졌고, 기타 언어 등에 대한 강의도 3배로 늘었다. 또한 재정공제회 전용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를 통한 외국어 교육으로 임직원 누구나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및 해외기관과의 교류 증가로 글로벌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2024년에는 대면 영어교육을 새롭게 신설했다. 대면 영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원어민 전문강사 및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기존 운영되던 해외 시찰 연수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사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총 12개의 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해외 선진 산업시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선진 산업시찰을 통해 세계 보험시장의 중심인 로이즈(Lloyd)를 방문하여 리스크관리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제네바 포럼(GENEVA Forum)에 참석하여 임팩트 투자 및 SDGs에 관한 세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영미법에 치중되어있는 공공계약 제도연구의 다양성을 위해 프랑스 대법원 등을 방문하여 프랑스 공공계약제도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기도 하였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연방-지방관계로 살펴본 연방보조금 배분 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인프라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옥외광고산업 분야로도 유럽, 미국 등을 방문하여 해당 산업의 최신 현안을 확인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의 기회로 선진 산업시찰을 활용하였다.



2023년 디지털 광고물 정책과 지역활성과 전략 조사(미국)

글로벌 선진사례 답사 및 외국인 공무원 교육 추진

재정공제회는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뿐 아니라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한 지방재정 제도와 관련된 교육 제공을 통해 국제교류의 기틀을 다지고자 계획하고 있다.

재정공제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코로나19 기간 제외) 공유재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 실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재산 가치상승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선진사례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023년에는 독일, 체코, 헝가리를 방문하여 공유재산 개발 전략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중 헝가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 문화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수 십년 동안 폐쇄 또는 방치되었던 1,000,000㎡ 규모의 공간을 온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지구 등으로 활용한 ‘리게트 부다페스트 프로젝트(Liget Budapest Project)’로 공유재산 개발을 통해 공간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증대라는 부수적인 성과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체코에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자발적 투자와 운영으로 유희 군사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한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재산 관리 방안을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외 공공기관 재정정책 및 기금운용 분야와 관련해서도 포르투갈 투자무역청, 리스본 시청 재정부, 안달루시아 지방행정경제심판원,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방재정 정책 우수 사례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담당자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선진사례 방문에서 더 나아가 2024년에는 재정공제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적 전문기관을 표방하는 비전에 걸맞은 기관이 되고자 ‘외국인 대상 글로벌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대상은 국내 체류 또



2024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오스트리아)

는 연수 중인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및 학생 등이며, 재정공제회의 주요 사업과 사회적 자본, 지역공동체, 지방재정의 이해 등과 같은 지방정책 관련 특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외국인 대상 글로벌 교육’은 지방재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유협력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공제회의 공적 역할 강화와 함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오스트리아)

재정공제회,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약진

재정공제회는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22년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독일의 유관기관 KSA와의 MOU 체결 및 공제사업 정보 교류,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해외 투자자산 현장점검, 해외통신원 및 글로벌 리포터 현시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24년에는 한국지역개발학회 및 베트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타당성분석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주요 사업별로 글로벌 교류를 확대해왔다. 재정공제회는 이와 같은 약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재정공제회 해외활동내역

네덜란드

글로벌리포터(13건)

영국

해외투자 영국 스코틀랜드 은행 사옥(842억 원)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The Crown Estate(영국 왕실재산 위탁관리 기관)

영국 정부 국유지 사무소

런던 도시재생 사무소, 왕립 감정평가 연구원

재정포럼

New London Architecture

(런던 도시개발, 재생전략 관리기관)

영국 국유지사무소

The Property Advisory Team

(런던 위탁개발전략 전문기관)

선진산업시찰

도크랜드(Dockland) 박물관

Royal London, Lloyd

글로벌리포터(11건)·해외통신원(247건)

포르투갈

재정포럼

방센느 시, 신트라 시

선진산업시찰

포르투 시

제이씨데코 포르투갈(JCDecaux Portugal)

코임브라 대학교

스페인

재정포럼

톨레도 시

해외통신원(48건)

프랑스

해외투자

파리 노바티스 사옥(226억 원)

파리 CBX 빌딩(96억 원)

재정포럼

국공유지 부동산 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파리시 예산과, 스코르 재보험

선진산업시찰

파리 대법원, 파리 행정법원

보르도 법원, 보르도 시, 아를 시

글로벌리포터(9건)·해외통신원(208건)

아프리카

해외통신원(1건)

노르웨이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Statsbygg(노르웨이 정부 산하 재산관리 전문기관)

Omsorgbygg(노르웨이 오슬로 시 산하 재산관리 전문기관)

Senaatti(핀란드 정부 산하 재산관리 전문기관)

해외통신원(1건)

덴마크

해외투자

덴마크 Orsted 사옥(300억 원)

스웨덴

글로벌리포터(6건)·해외통신원(4건)

크로아티아

재정포럼

트로기르 시, 스플리트 시

두브로브니크 시

오스트리아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비엔나 도시혁신센터

재정포럼

ERGO 손해보험

이탈리아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피렌체시 도시계획과

로마시 공공지관리과

해외통신원(2건)

스위스

선진산업시찰

GENEVA Forum, 베른대학교

취리히대학교

인도

해외통신원(1건)

파키스탄

해외통신원(1건)

 폴란드

해외투자
폴란드 BOS 사옥(318억 원)

 독일

MOU LOFA-KSA 간 업무협약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드레스덴 시, 베를린 시
WISTA, BLC(베를린비즈니스위치센터)
재정포럼
원현 재보험
글로벌리포터(28건)·해외통신원(254건)

 체코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프라하 시
카사르나 카를린 운영기관
재정포럼
브로노 시, 프라하 시

 헝가리

국외 공유재산관리 연수
부다페스트 시

 태국

해외통신원(1건)

 베트남

MOU
한-베트남 유관기관 국제협력 업무협약
해외통신원(17건)

 캐나다

재정포럼
패어팩스 카운티 재무부
몽고메리 카운티 예산부서
포트리 보로 시장 및 재무부서

선진산업시찰
몬트리올 시

해외통신원(174건)

 미국

해외투자
샌프란시스코 YELP 사옥(237억 원)
EPSON 사옥(197억 원)

재정포럼
온타리오 재무부
선진산업시찰
HD(Hospitality Design) EXPO
KOTRA 실리곤밸리 무역관
USC 대학교
남가주정부연합(SCAG)

글로벌리포터(101건)·해외통신원(302건)

 일본

글로벌리포터(26건)·해외통신원(258건)

 대한민국

재정포럼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대만

해외통신원(25건)

 중국

해외통신원(242건)

 홍콩

해외통신원(3건)

 싱가포르

글로벌리포터(7건)·해외통신원(87건)

 말레이시아

글로벌리포터(5건)

 인도네시아

MOU
한-아세안 국제협력

 뉴질랜드

해외통신원(2건)

 호주

선진산업시찰
시드니 시,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시드니대학교
글로벌리포터(16건)·해외통신원(160건)

Chapter 4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

Sustainability

재정공제회는 ESG 경영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회원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 /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 운영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사회적 자본’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제약 속에서 다양한 지역기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운영했다. 이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고의 출발은 각자의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 또는 공동선을 위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기 위해 이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다.

3년간 포럼을 운영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 정책 등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가 공유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 측정과 활용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

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지방재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포럼은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활용방안 모색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과정 속에서 이양된 기능이 현실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2단계까지의 재정분권으로 확충된 지방재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논의가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포럼이 시작된 2021년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자본 연구로 ‘정책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접근’,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서의 개념화와 역할 및 측정의 적용가능성 모색’ 등 총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자본의 프레임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지방재정의 현상들을 탐색·연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금융 자본’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포럼에서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및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실제 정책과 시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후속 논의를 전개했다.

포럼의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저출생 등에 기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재정의 위기관리와 효율성 강화 등 최근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을 주목하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주제로 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정책 적용 사례를 다룸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3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이 포럼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지방재정 관리와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단계별로 진행된 논의와 다양한 활동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포럼의 최종 성과를 집대성한 전문도서 발간

3년간의 포럼 운영에 대한 결과물로 각 연도별 성과를 종합하여 3권의 전문도서를 발간했다. 2021년 발행한 첫 번째 책자는 이인재 이사장의 ‘정책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접근’을 주제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총론의 내용을 담아 출간되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역할, 더 나아가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담겨져 있다.

이어 발간된 두 번째 책자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특히 이 책자에는 2022년 12월 개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에서 발표된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로버트 퍼트남 명예교수가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국내외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한 세션 내용을 현장감 있게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발간한 세 번째 도서에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활성화와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하에 공공가치 공동창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록했다. 특히, 정책수단으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발간(2021~2023)

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지역사회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발간된 전문도서들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관련 학회와 연구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재정공제회의 홈페이지에도 e-book으로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의 관심 있는 학자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초록(Abstract)을 별도로 제작했다. 이러한 자료의 공유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2차 지방재정제도 발전 세미나(2023.03.31.)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가치 조명과 국제사회 전파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포럼과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발표와 토론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 적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본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지방재정 관리 및 효율성 향상

과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정책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국내는 물론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개발, 지방재정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재정공제회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Pre-PSIC(공공부문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전파했다.

2024년 3월에 개최된 ‘Pre-PSIC 2024 Indonesia’는 우리나라 각 분야별 학회와 재정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학술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재정공제회는 2024년 PSIC 2024 총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테르부카 대학교(Universitas Terbuka)와 MOU를 체결했다. 이어 국내 4개 주요 학회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아세안 국가의 학자들과 ‘Accountability and Social Capital in Local Finance’라는 대주제 아래 사회적 자본, 지방자치, 지역개발 등 각 연구 분야의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지적재산의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Pre-PSIC 2024 Indonesia(2024.03.04.)

2 /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의결기구 운영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총회·운영위원회 운영

재정공제회는 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회원의 경제제언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정공제회는 출범 이후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했으며, 1988년 6월에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 관련 책임자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및 결산안의 결, 자산의 관리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3년 5월 15일 제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는 재정공제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각 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조정했다.

총회는 재정공제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고 있



제3차 운영위원회(2023.11.23.)

다. 현재 재정공제회의 회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총 41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이사, 행정안전부 공제회 업무 담당 과장, 특별시, 광역 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의 공유재산 담당 국장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운영위원회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업의 기본계획안,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 진행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재정공제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 규정 개정, 사업 예산 등 주요 사항들을 투명하게 의결하고 있다. 특히 총회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원의 의견이 재정공제회의 중대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공제회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모든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원들의 신뢰를 받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센터 역할 강화

재정공제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총회 회원 및 운영위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상시적인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지부 조직의 변동 시 신속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운영위원이 경영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창구를 마련하고, 해당 제언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피드백 과정을 활성화하여 운영위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했다.

특히 4대 광역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유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광역센터는 서울 본사와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광역센터의 관리·책임자인 센터장이 외부 고객인 지방자치단체와 내부 고객인 시도지부 간의 소통을 주도함으로써 보다 긴밀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요 안전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센터 직원들이 직접 시도지부를 방문해 일일이 안전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즉시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2024년 수도권광역센터지부 연찬회를 통한 의견청취

소통 활성화 노력의 성과와 책임경영 실현

재정공제회는 총회 회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운영위원회 외부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위원회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만족도의 경우 2021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회의 품질, 회의 절차, 직원 태도, 인식도 제고, 책임경영 부합 등 모든 문항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며 재정공제회의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재정공제회가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회원과 운영위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통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회원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 '사회공헌위원회' 출범과 ESG 경영 선포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나눔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08년 'TIP 리더스클럽'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2010년에는 조직문화정책관을 임명하여 원평 팜스테이마을 자매결연 등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향한 기부를 시작했다. 2011년 독거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북나눔연대 기부금 500만 원 전달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후원 금액을 증액했다. 기부 대상도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지원, 코로나 19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2022 코리아휠체어 컬링리그 후원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시의적절하게 선별지원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산불 피해지역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전달식, 공덕동주민센터에 김장김치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결과, 재정공제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과 2017년 농촌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중앙일보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용품 나눔(2023.12.14.)



경기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1억 원 전달식
(2023.09.30.)



충남 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1억 원 전달식
(2023.05.02.)

체계적 사회공헌을 위한 LOFA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2008년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재정공제회는 단순한 기부와 봉사활동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LOFA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OFA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 결정, 평가 등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전사적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휘한다. ‘LOFA 사회공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경영혁신본부장, 공제사업본부장, 지방회계통계본부장,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상임감사, 노조위원장 등 7인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LOFA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계획에서부터 예산 집행, 의사결정,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직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며 사회공헌활동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공제회는 LOFA 사회공헌위원회의 신설을 계기로 2023년부터 기존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 우선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를 ‘상호부조 이념을 바탕으로 한 나눔문화 선도’로 설정하고, ‘나눔의 행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다. 사회공헌체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재정공제회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와 봉사를 넘어 임직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했다.

각 분야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와 나눔문화 확산

LOFA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후 재정공제회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지역활력, 안전·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활동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마포 찾아가는 푸드마켓’, ‘사랑의 겨울나기 나눔’, ‘임직원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공정한 교육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LOFA 아동·청소년 희망나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차별 해소를 위해 ‘무장애 실내놀이터 건립’을 지원했다. ‘무장애 실내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놀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활력 분야에서는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인 ‘예술로 날다’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 두 끼 프로젝트’, ‘행복 나눔 임직원 배식 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환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분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재난 안전 대비용품 지원’, ‘2023 마포생물다양성탐사대회’ 후원, ‘플라스틱 달고나 체험’, ‘임직원 사랑의 헌혈 나눔’ 등이 있다.



행복나눔 임직원 배식봉사(2023.09.27.)



플라스틱 달고나 체험 교육(2023.09.15.)



자연과 함께 교감하는 마포 생물 다양성 탐사대회 개최(2023.10.28.)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ESG 경영 선포

재정공제회는 2023년 12월 18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S)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E)과 투명한 지배구조(G)를 뜻하는 ESG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회공헌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재정공제회는 '사회공헌과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외 소외계층

문화일보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게재일자 : 2023.12.21

지자체 재난지원서 해외 지진구호까지... 세계로 가는 'ESG경영'



이인재(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공헌과 ESG 경영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한 뒤 선언문을 낭독한 두 사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ESG경영 선포식 문화일보 언론보도(2023.12.21.)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지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이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윤리의식을 갖추므로써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재정공제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외 취약계층 및 재난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2023년 초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후원하며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또한 नेपाल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여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국외까지 넓혀나가고 있다.

ESG 경영 성과에 따른 정부 및 기관 표창

재정공제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정부 및 주요 기관으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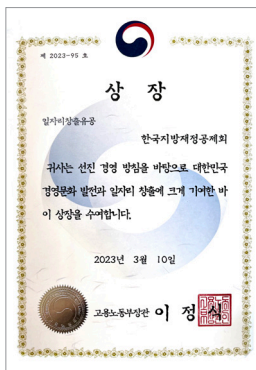
2021년에는 ‘국가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2021 안전문화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경영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들어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뛰어난 회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및 ‘한국정부회계학회 20주년 기념 정부회계인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22년에는 공제기관 최초로 ‘BCMS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직의 위기관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더욱 많은 경영성과를 거두면서 대외적 위상을 높였으며, 이에 따른 대외 수상 또한 크게 늘어났다. ‘2023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인재경영 부문 수상, ‘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사회적책임경영 부문 수상, ‘제24회 사회복지의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상반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정공제회는 이와 같이 ESG 경영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유공



2023 대한민국 창조경영 사회적책임경영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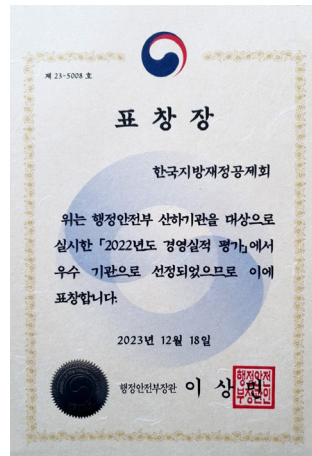
4 /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경영성과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의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는 전략 및 리더십, 윤리·책임경영, 일자리 창출, 안전 및 환경, 국민소통 및 참여, 경영혁신 등의 종합경영 지표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경영정보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리 등의 경영관리 지표, 그리고 주요 사업 및 혁신계획의 실행 노력과 성과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11년도부터는 경영평가 적용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평가편람에 의거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며, 첫 평가부터 2015년도까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양호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전체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전체 평가항목에서 A를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재정공제회는 전사 미션 및 비전 재정의에 따라 전략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재정공제회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4년 연속 표창 수상 (2023.12.18.)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노력과 경영혁신 성과

재정공제회는 지속적인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2021년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다. 재정공제회의 이러한 노력은 조직문화 개선, 경영혁신, 사회공헌활동 및 ESG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경영실적평가단은 재정공제회 경영진이 전사적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재설정했다는 점,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실행했다고 호평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조정을 통해 기관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재정공제회는 202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역활력을 통한 진단 및 지원 고도화’ 과제를 신설하고, ‘ESG 경영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비롯한 기존 과제의 고도화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공제회는 지역활력지원단 및 지방투자분석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관장 주도하에 건전한 지방투자, 지방소멸 적기 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현안과제 이행에 적극 나서며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산운용과 회원지원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공제사업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회원지원 연간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2년에 5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원지원을 강화한 것도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회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재정공제회는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재정공제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 지역사회 동반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옥외현판 설치

재정공제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지방재정회관 외벽에 옥외현판을 설치했다. 이 옥외현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재정공제회를 알릴 수 있는 광고물이 회관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어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5월 옥외현판 설치를 추진했고, 전문업체 선정에서부터 관련 구청의 인허가 절차, 옥외현판의 디자인 및 설계, 제작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옥외현판의 디자인 선정은 재정공제회의 위상과 이미지에 부합하고 지방재정회관 건물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며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후 업체의 현장 실측 후 상세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옥외현판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회관 외벽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칭인 ‘LOFA’ 로고가 각각 부착되었다.

지방재정회관 옥외현판 설치는 재정공제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방문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이었다. 특히 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옥외현판 설치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및 일반 대중에게 재정공제회의 존재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재정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재정회관 옥외 현판 설치

6 / 60년 역사를 담은 ‘재정공제 아카이브’ 설치

기관의 역사와 가치 재조명을 위한 아카이브 설치

재정공제회는 2024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재정공제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역사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역사관 설치를 위해 2023년 1월 ‘LOFA 역사관 설치 TF’를 구성했다. TF는 타 기관 현장답사, 유물 공모 및 현판 디자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2023년 9월 역사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다. 특히 역사관의 명칭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재정공제 아카이브’로 명명되었으며, LOFA 역사관 설치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재정공제 아카이브 유물 발굴 및 명칭 공모전 시상식(2023.09.25.)

‘재정공제 아카이브’에서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재정공제회의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홍보 동영상을 통해 기관에 대

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재정공제회의 설립인가 문서 등 유물을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뿌리 깊은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으며, 지방재정 전문 기관으로서 발간한 전문 자료들이 14층 공간과 디지털 자료실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공제 아카이브'는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재정공제회의 60년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역사관은 재정공제회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성과를 답습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유도하고, 재정공제회의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공제 아카이브의 7가지 스토리

재정공제 아카이브는 재정공제회의 60년 역사를 담은 7가지 스토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공제회의 발전 과정과 업적, 공로자,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지속적으로 동행

공간 구분	공간별 스토리
Wave of Delight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LED sign, 웰컴 및 감성 영상을 상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열정	공제사업에서부터 회원지원, 회계통계, 옥외광고, 타당성 조사, 지역활력지원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열정이 담긴 사업들을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부심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ESG 경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재정공제회의 자부심을 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유물	최초 직인과 재정공제회 설립 관련 문서, 총회 의건서, 최초 나무현판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소개
디지털 자료실	재정공제회가 발간한 전문 도서 등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재정공제회의 지식 자산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기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한 사람들	역대 임원, 근속연수 15년 이상 퇴직 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재정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해 준 공무원들을 포함한 공로자들을 조명
Gathering 14	'14층에 모이다'라는 뜻으로, 소모임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자 포토존을 제공

〈아카이브의 7가지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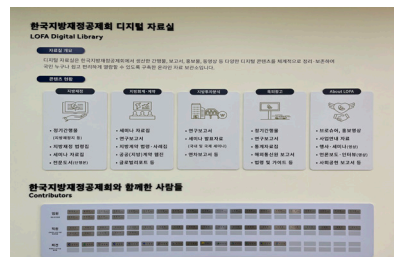
하고자 하는 재정공제회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회원과 함께하는 역사·휴식·문화 복합공간

재정공제 아카이브는 회원과 함께하는 역사, 휴식,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23년 9월 25일 그 문을 열었다. 현판식은 재정공제회의 긴 여정과 성과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재정공제 아카이브는 재정공제회가 지난 60년간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낸 결과물이다. 이곳은 단순히 재정공제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을 넘어 임직원과 회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재정공제 아카이브는 전현직 임직원 교류행사, 신입직원 OJT, 인턴십·대학생 서포터즈 견학 프로그램, 외빈 및 회원, 유관기관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정공제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넓은 대중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재정공제회는 재정공제 아카이브를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행 성장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정공제 아카이브 내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0주년



Appendix

1. 재정공제회 소개
2. 현 이사장 및 임원
3. 역대 이사장
4. 조직현황 및 변천사
5. 사회적 책임 경영 주요활동
6. 주요 재무통계
7. 수상·MOU현황
8. 회원 리스트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 재정공제회 소개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제 6872호, 2003.5)

회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공단·조합



행정안전부

주요사업



공제사업

합리적 공제회비로
고객맞춤형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역활력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 동네'가 되도록 기여합니다.



회원지원사업

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제사업의 이익 환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타당성조사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



지방회계통계사업

지방재정·회계·계약 관련 전문 교육,
연구 수행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합니다.

2. 현 이사장 및 임원



이사장
이인재



감사
정송학



경영혁신본부장
양영철



공제사업본부장
엄명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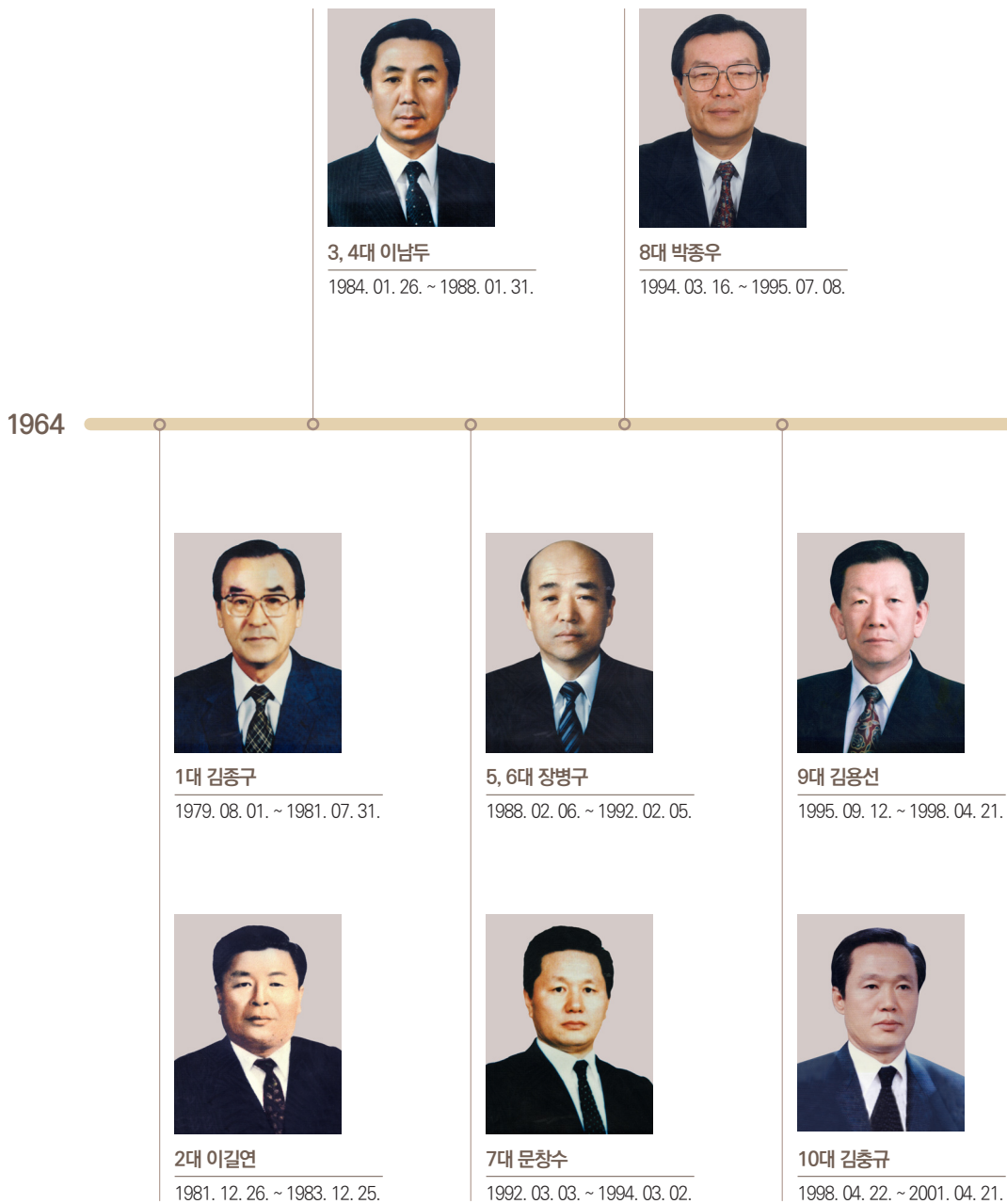


회계통계본부장
장동욱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여현호

3. 역대 이사장





13대 권혁인

2007. 09. 03. ~ 2008. 01. 25.



16대 김홍갑

2012. 02. 13. ~ 2015. 05. 05.



19대 이인재

2021. 05. 03. ~



11대 오형환

2001. 04. 23. ~ 2004. 04. 22.



14대 김국현

2008. 04. 07. ~ 2010. 10. 04.



17대 콧임근

2015. 05. 06. ~ 2018. 04. 06.



12대 조기안

2004. 07. 01. ~ 2007. 06. 30.



15대 이상복

2010. 11. 08. ~ 2011. 12. 16.



18대 김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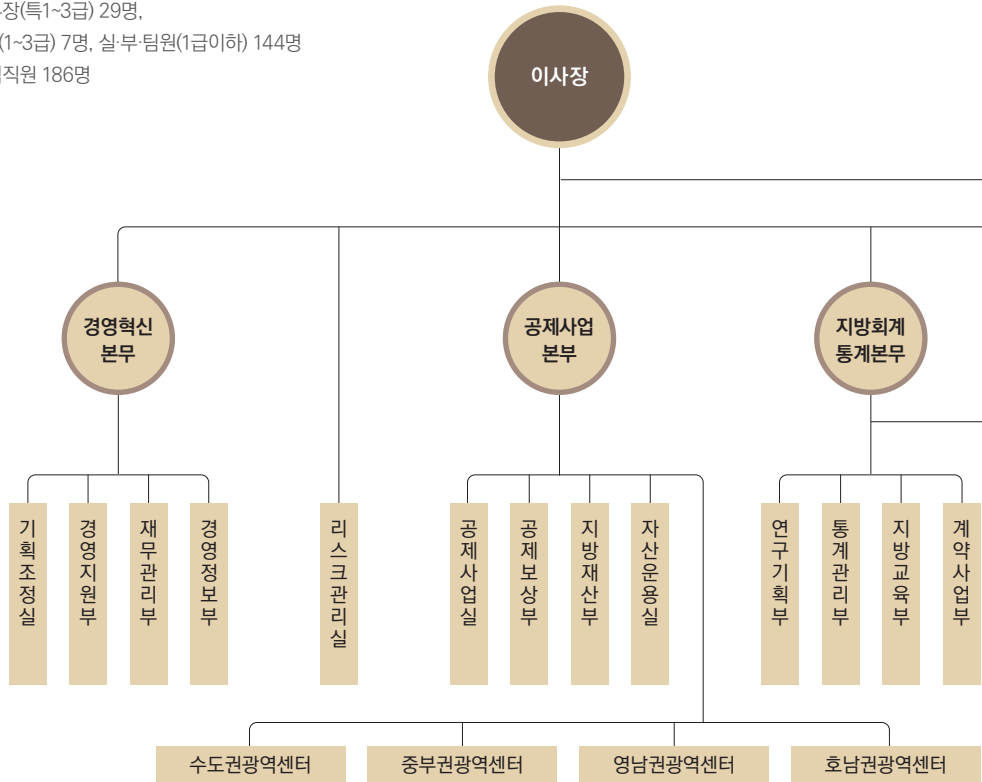
2018. 04. 07. ~ 2021. 05. 02.

2024

4. 조직현황 및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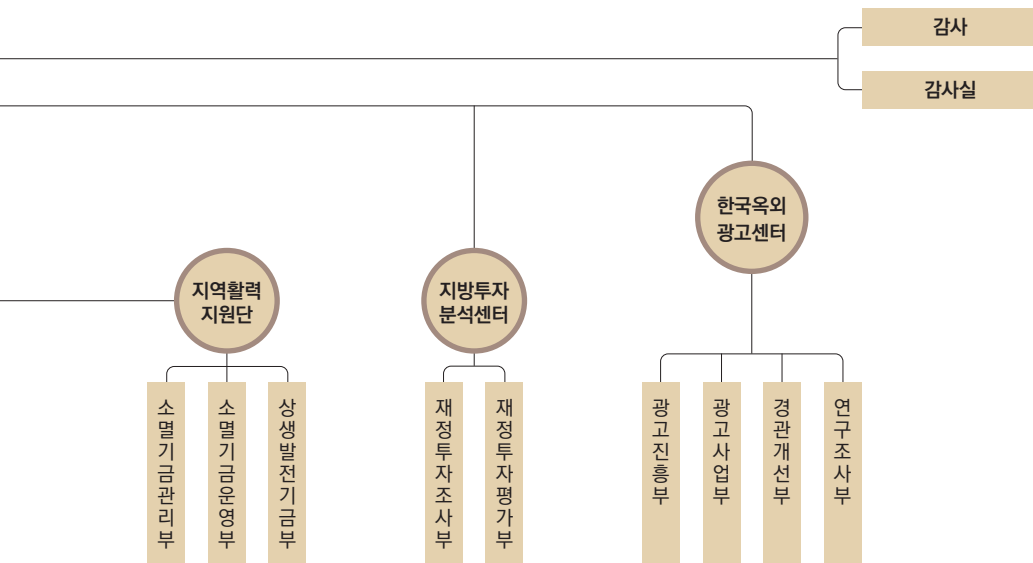
조직현황

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4명,
 실·부장(특1~3급) 29명,
 팀장(1~3급) 7명, 실·부·팀원(1급이하) 144명
 총 임직원 186명



조직변천사

연도	조직	인원	비고
1983	1국 2부 13지국	9명	직제규정 제정
2008	1본부, 1센터, 1단 3실 6부, 16시·도지부	81명	옥외광고센터 개소
2010	본부 : 1단 3실 7부 16시·도시부	81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2014	1본부, 1센터, 1단, 4실 7부 17시도시부	82명	리스크관리실 신설
2016	1본부, 2센터, 1단, 19팀, 17사·도 지부	117명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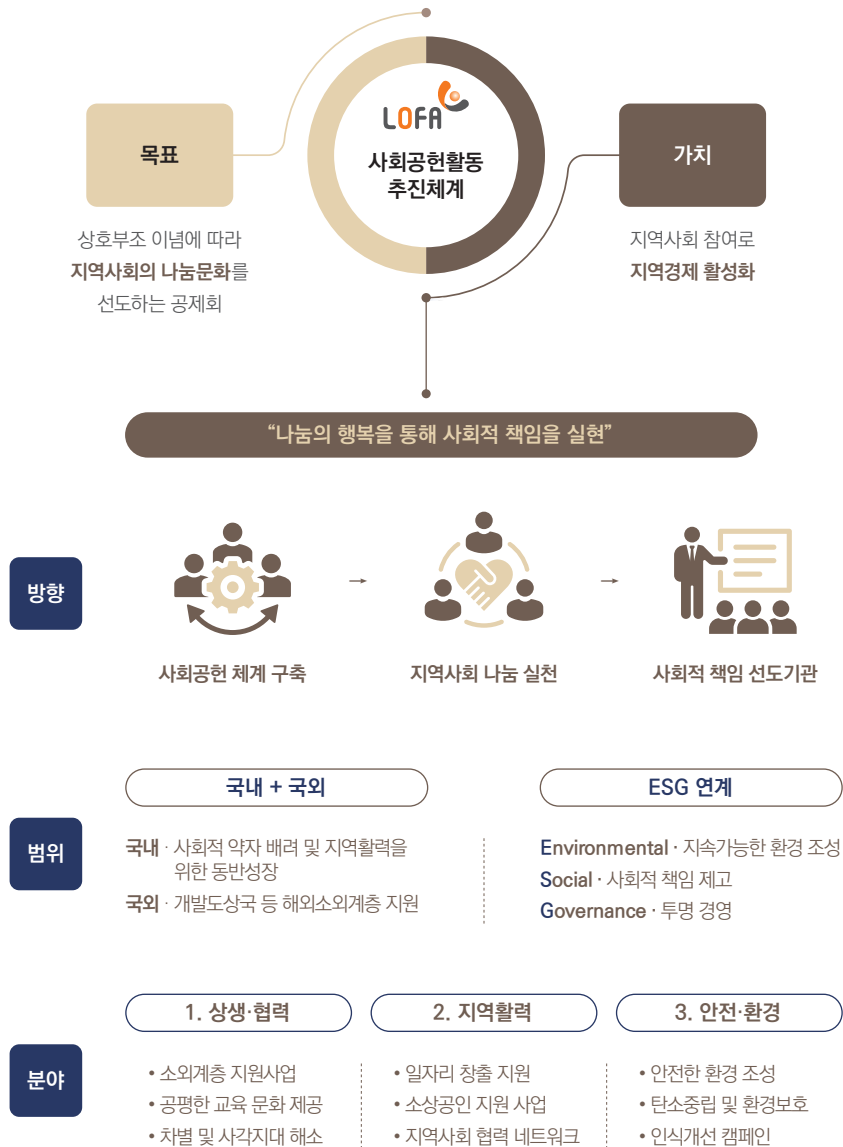


연도	조직	인원	비고
2017	2본부, 2센터, 21팀, 17시·도 지부	128명	공제회법 개정으로 임원정수 확대, 일자리혁신팀 지방재산팀 신설
2021	2본부, 3센터, 4실, 16부, 17시·도 지부	169명	재무관리부 신설, 리스크관리실로 격상
2022	3본부, 2센터, 4실, 19부, 4광역센터, 17시·도 지부	186명	지방투자분석센터 개소, 광역센터 개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역활력지원단 개소
2023	3본부, 2센터, 5실, 18부, 4광역센터, 17시·도지부	186명	공제사업실로 격상

5. 사회적 책임 경영 주요활동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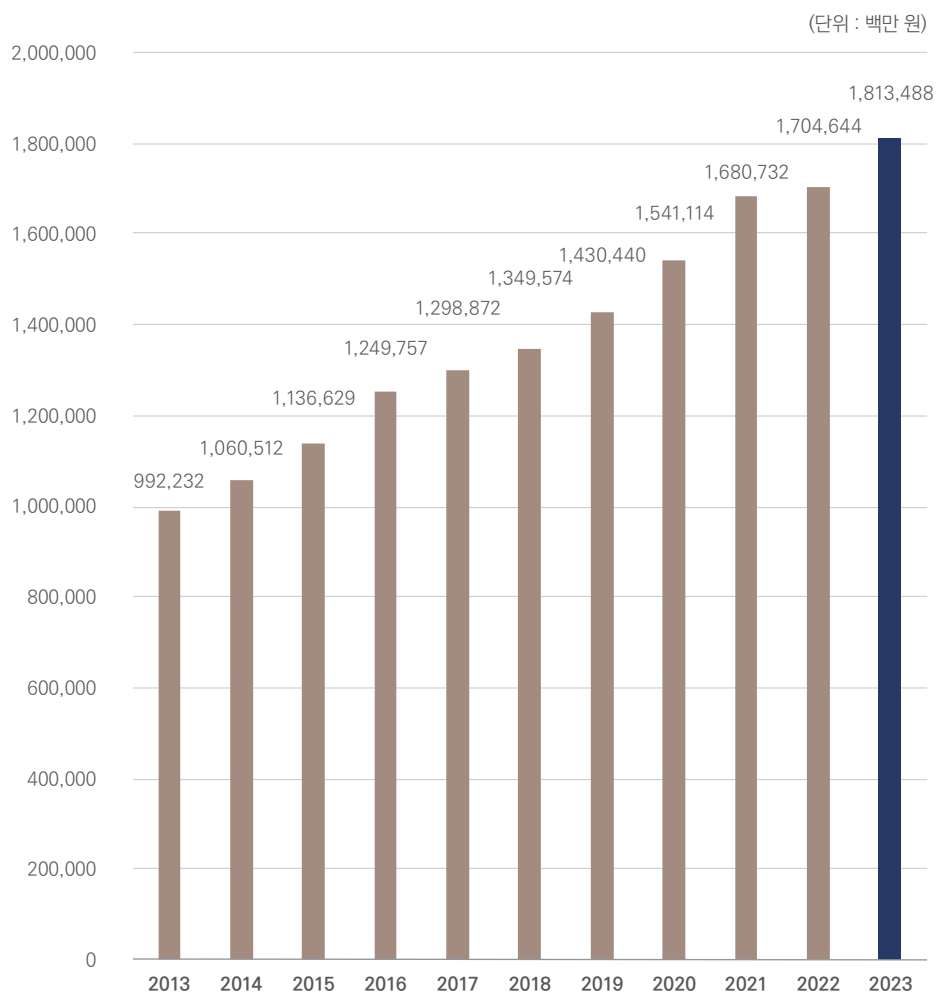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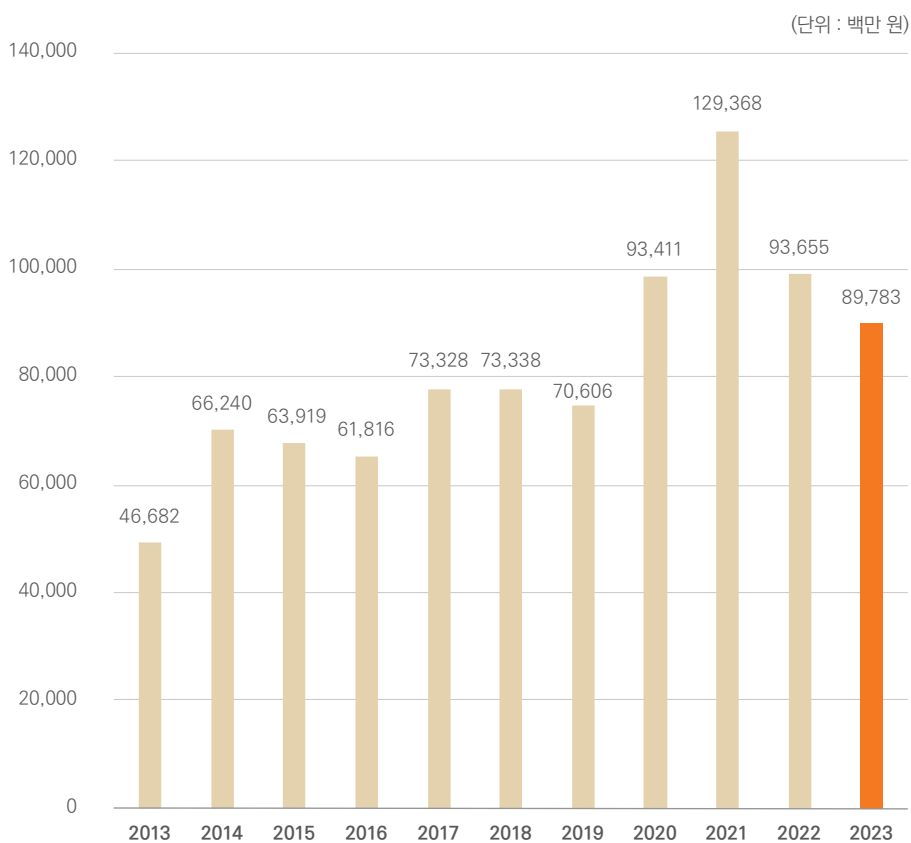
6. 주요 재무통계

총자산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자산	992,232	1,060,512	1,136,629	1,249,757	1,298,872	1,349,574
당기순이익	46,682	66,240	63,919	61,816	73,328	73,338

당기순이익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자산	1,430,440	1,541,114	1,680,732	1,704,644	1,813,488
당기순이익	70,606	93,411	129,368	93,655	89,783

7. 수상·MOU현황

연대	수여기관	수상내역	훈격(등급)
2014	한국광고PR실학회	2014 올해의 광고상(부문 : 산업진흥상)	부문상
	4개 보험사(KB, DB, 삼성, 현대)	공유재산 위험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MOU
2015	한국TC협회	한국TC협회 업무협약	MOU
	매경미디어그룹	2015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협약	MOU
2016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업무협약	MOU
	한국경제	2016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대상
	마노아마노,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시민의 모임,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옥외광고 공익활동 공동협력 협약	MOU
	한국OOH광고학회	2016 OOH광고대상 도시경관진흥대상	특별상
	문화일보	2016 문화일보 그랑프리 공기업부분상 수상	공기업부분상
	행정안전부	2015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	표창장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체결	MOU
2017	대통령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대통령상	표창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 업무협약	MOU
	서울특별시, (사)옥외광고협회동대문지부, (주)에코시티서울, (주)터치포곳, (재)함께일하는재단	옥외광고물 재생사업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2016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	표창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2017년 반부패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렴우수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인증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대한 공로인정 (신용철과장)	표창장
2018	대통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통령상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표창장
	대통령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공로인정(박정규팀장)	표창장
	국무총리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공로인정(신현지과장)	표창장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2017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	표창장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지원 등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MOU
	홍익대학교	지방계약법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한국정부회계학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MOU

연대	수여기관	수상내역	훈격(등급)
2018	행정안전부	2018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8년 반부패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렴우수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SK텔레콤(주)	옥외광고 효과검증 공동 연구 업무협약	MOU
2019	한국언론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제9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환경부 장관상	장관상
	부산시설공단/삼성화재	BCMS 구축 컨설팅 공동협력 업무협약	MOU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세종시설공단	안전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공유재산 안전관리체계 강화	MOU
	한국심자격인증권(KSR)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기획재정부	제25회 통계의날 기념 통계발전 유공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장관상
	서울특별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록증
	대전시/한국과학기술원	국제표준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정보화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표창장
	매경미디어그룹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리더십경영)	대상
2020	한국언론인협회	제14회 국가지속가능경영컨퍼런스 공정거래위원장상	장관상
	행정안전부	2019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창장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2020~2022)	인증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한국시사경제	2020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대상
	매경미디어그룹	2021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리더십 경영)	대상
2021	경찰공제회	반부패-청렴활동 부문 업무협약	MOU
	중앙일보	2021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지역사회공헌)	대상
	한국언론인협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고용노동부 장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방치 자전거 재사용 센터 활성화 협약	MOU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2020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창장

7. 수상·MOU현황

연대	수여기관	수상내역	훈격(등급)
2021	행정안전부	2021 안전문화 대상(민간 기관 부문)	국무총리표창
2022	매경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지역상생경영)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계약 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MOU
	한국경영인증원	2022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인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MOU
	사회적가치연구원	ESG 경영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MOU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홍보산업의 진흥 및 사회공헌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
	행정안전부	2021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창장
	영국표준협회 (BSI)	공제사업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BCMS) 국제표준인증 취득	인증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20주년 기념 정부회계인상 수상(기관 부문)	수상
2023	건축공간연구원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 정책제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MOU
	매경미디어그룹	2023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인재경영)	수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일자리창출유공)	수상
	중앙일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수상 (사회적책임경영)	수상
	한국표준협회 (KSA)	공제회-KSA 업무협약	MOU
	베트남 도시계획 및 개발 협회(VUPDA), 하노이 건축대학교(HAU), 한국지역개발학회	한-베트남 유관기관 국제협력 업무협약	MOU
	보건복지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장관상
	한국능률협회 (KMA)	지방재정 지식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지방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MOU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천시, 경산시	인공지능과 CCTV 활용 현수막 탐지 기술 개발 실증사업 업무협약	MOU
2024	행정안전부	2022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창장
	광주 서구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광고물 전수조사 방안 연구	MOU
	인도네시아 테르부카 대학교	한아세안 네트워크 업무협약	MOU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ESG경영 기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MOU

8. 회원 리스트

가나다 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 동두천시	경남 사천시	경북 포항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기 본청	경남 산청군	고래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경기 부천시	경남 양산시	고양도시관리공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경기 성남시	경남 의령군	고양문화재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경기 수원시	경남 진주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강서구도시관리공단	경기 시흥시	경남 창원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원 강릉시	경기 안산시	경남 창원시	광명도시공사
강원 고성군	경기 안성시	경남 통영시	광주 광산구
강원 동해시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광주 남구
강원 본청	경기 양주시	경남 함안군	광주 동구
강원 삼척시	경기 양평군	경남 함양군	광주 본청
강원 속초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합천군	광주 북구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 서구
강원 양양군	경기 오산시	경남연구원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강원 영월군	경기 용인시	경남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북구
강원 원주시	경기 의왕시	경북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강원 인제군	경기 의정부시	경북 경주시	광주교통공사
강원 정선군	경기 이천시	경북 고령군	광주도시관리공사
강원 철원군	경기 파주시	경북 구미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강원 춘천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교통연수원
강원 태백시	경기 포천시	경북 문경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강원 평창군	경기 하남시	경북 본청	구로문화재단
강원 홍천군	경기 화성시	경북 봉화군	구리도시공사
강원 화천군	경기관광공사	경북 상주시	군포문화재단
강원 횡성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북 성주군	군포산업진흥원
강원개발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북 안동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강원문화재단연구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북 영덕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북 영양군	금천문화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북 영주시	김포도시공사
경기 가평군	경남 거제시	경북 영천시	김포문화재단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경북 예천군	김포산업진흥원
경기 과천시	경남 고성군	경북 울릉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명시	경남 김해시	경북 울진군	남구시설관리공단
경기 광주시	경남 김해시	경북 의성군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구리시	경남 남해군	경북 청도군	남양주시
경기 군포시	경남 밀양시	경북 청송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경기 김포시	경남 본청	경북 철곡군	대구 군위군

8. 회원 리스트

가나다 순

대구 남구	부산 강서구	서울 마포구	안산환경재단
대구 달서구	부산 금정구	서울 본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서울 서대문구	안양문화예술재단
대구 동구	부산 남구	서울 서초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대구 본청	부산 동구	서울 성동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대구 북구	부산 동래구	서울 성북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대구 서구	부산 본청	서울 송파구	어린이인성학습원
대구 수성구	부산 부산진구	서울 양천구	여주시공사
대구 중구	부산 북구	서울 영등포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산 사상구	서울 용산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산 사하구	서울 은평구	영등포문화재단
대구교통공사	부산 서구	서울 종로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부산 수영구	서울 중구	영화의전당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 연제구	서울 종량구	오산문화재단
대구의료원	부산 영도구	서울디지털재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문화재단	용인도시공사
대전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시설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대전 본청	부산교통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인시산업진흥원
대전 서구	부산기장군도 서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대전 유성구	부산시시설공단	성남시의료원	울산 남구
대전 중구	부산테크노파크	성남시청소년재단	울산 동구
대전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울산 본청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울산 북구
대전교통공사	서구문화재단	세종 본청	울산 울주군
대전도시공사	서울 강남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울산 중구
대전문화재단	서울 강동구	세종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서울 강북구	세종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강서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 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관악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시설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광진구	수원도시공사	울산연구원
마포문화재단	서울 광진구	수원도시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백스코	서울 구로구	수원문화재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울 금천구	수원시체육회	울산테크노파크
	서울 노원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울 도봉구	안산도시공사	울주문화재단
	서울 동대문	안산문화재단	
	서울 동작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전남 강진군	전북 진안군	충북 괴산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전남 고흥군	전북개발공사	충북 단양군
은평문화재단	전남 곡성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 보은군
의왕도시공사	전남 광양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충북 본청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전남 구례군	제주 본청	충북 영동군
의정부시예술의전당	전남 나주시	제주에너지공사	충북 옥천군
의정부청소소년재단	전남 담양군	제주테크노파크	충북 음성군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남 목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제천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전남 무안군	개발공사	충북 증평군
인재육성재단	전남 보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진천군
인천 강화군	전남 본청	경제통상진흥원	충북 청주시
인천 계양구	전남 순천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충북 충주시
인천 남동구	전남 신안군	중구문화재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인천 동구	전남 여수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인천 미추홀구	전남 영광군	종량구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관광공사
인천 본청	전남 영암군	천안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전남 완도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포천문화관광재단
인천 서구	전남 장성군	춘천도시공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 연수구	전남 장흥군	충남 계룡시	하남도시공사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충남 공주시	하남문화재단
인천 중구	전남 함평군	충남 금산군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전남 해남군	충남 논산시	행정안전부
인천관광공사	전남 화순군	충남 당진시	화성도시공사
인천광역시시서구	전북 고창군	충남 보령시	화성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전북 군산시	충남 본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인천교통공사	전북 김제시	충남 부여군	화성시환경재단
인천도시공사	전북 남원시	충남 서산시	
인천문화재단	전북 무주군	충남 서천군	
인천시설공단	전북 본청	충남 아산시	
인천환경공단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	
재단법인	전북 순창군	충남 천안시	
울산문화관광재단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	
재단법인김포FC	전북 익산시	충남 태안군	
재단법인	전북 임실군	충남 홍성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전북 장수군	충남연구원	
재단법인	전북 전주시	충남혁신도시	
인천테크노파크	전북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조합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003. 5. 15 제정 법률 제 6872호
2008. 2. 29 개정 법률 제 8852호
2011. 8. 4 개정 법률 제10994호
20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2014. 11. 19 개정 법률 제12844호
2017. 3. 21 개정 법률 제14620호
2017. 7. 26 개정 법률 제14839호
2018. 10. 16 개정 법률 제1580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법인격과 등기)

-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사무소)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정관)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2(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 [전문개정 2011.8.4.]

제8조(조직)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전문개정 2011.8.4.]

제9조(총회)

-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 이사장 1명
 - 2. 이사 4명
 - 3. 감사 2명
- [전문개정 2017.3.21.]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용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재정)

-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 [전문개정 2011.8.4.]

제21조의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중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3.21.>]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에서 이동 <2017.3.21.>]

제24조(과태료)

-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수철원호선화강수표식소전진만호선도회화속규정지일원용훈우민지연준원지육하주현수
이양이신강창재기박식이소전하남양병이주성권임창희신성창강정변해이김서민준원지
우영종신강창재기박식이소전하남양병이주성권임창희신성창강정변해이김서민준원지
구수우선규영섭배인재형박한안현환회래복신정완경화갑신수배현환중열연김윤식기우
병창종용정영이김성혁요덕공형안조기석표옥갑신수배현환중열연김윤식기우
장문박김임희이김권남김오김이정순옥갑신수배현환중열연김윤식기우
지용열상혁이영은이연혁영우진원회성훈내근석국김대중준영이최권김박성혜지원
최김박윤조류방김권라김수광이박이김서김이한차이종국김대중준영이최권김박성혜지
대모영미민철연조형태문원릉영우환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영주성강이영수용가성계제학김동상강노박윤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
권김상국윤수형지유준박최이연재옥철상학우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
훈수일미정오영진경재박용아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도정실영석아미애선희박성미래이수창현옥박진경진미소세빈연이진현숙김지빈유수
김기학이원경최하노훈김진주이수창현옥박진경진미소세빈연이진현숙김지빈유수
강경수표식연만호선도회화속규정지일원용훈우민지연준원지육하주현수
성규영섭배인재형박한안현환회래복신정완경화갑신수배현환중열연김윤식기우
임합이이김권남김오김이정순옥갑신수배현환중열연김윤식기우
지영은지연혁영무진원회성훈내근석국김대중준영이최권김박성혜지원
류방김재래김수광이박이김연이김대중준영이최권김박성혜지원
민철연조형태문원릉영우환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영수용가성계제학김동상강노박윤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최김신송강이박지동상강노박윤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오영진희경재옥철상학우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최윤조준미이연장영명성용아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아미애선희이연장영명성용아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경은희인군성미유수창현옥박진경진미소세빈연이진현숙김지빈유수
이최박노훈김박주이장현현수경진미소세빈연이진현숙김지빈유수
연만호선도회화속규정지일원용훈우민지연준원지육하주현수
이장해남창병이이연권임김신윤장성석강최변이김민서김중은원지김이백조세원김
권남김덕공형지국석보숙이상최월홍광달근박상동제정김박기우김민서김중은원지김
연혁영무진원회성훈내근석국김대중준영이최권김박성혜지원
수광인상에균이한충진오김제기대정경호최수민김성원유소은지윤김형찬혁배정욱
김조이박이김서김이한충진오김제기대정경호최수민김성원유소은지윤김형찬혁배정욱
형해문원릉영우환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이박지동상강노박윤송지정이김배성철현회최대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재호옥철상학우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이연동영명송우구상식김배영최원현필상철대방우영이윤조승화한류김경
이여장양업정이박김박영최이신채양이곽이방최대병안박신유임윤조김민권김진희강승
이여장양업정이박김박영최이신채양이곽이방최대병안박신유임윤조김민권김진희강승

“함께한 6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도전, 열정, 그리고 혁신으로 가득 찬 지난 60년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역사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라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이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빛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를 반추하게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나온 60년의 경험과 성취는 우리가 더욱 멀리, 더욱 크게 꿈꾸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함께한 60년”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강력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직원 일동

LOFA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이인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찬위원 양영철(경영혁신본부장, 총괄 단장)
엄명삼(공제사업본부장)
장동욱(지방회계통계본부장)
여현호(한국옥외광고센터장)

편찬자문위원 신동현(공제사업실장)
이효대(광고진흥부장)
신용철(경관개선부장)

편찬전담반 유정화(재무관리부장, 총괄 팀장)
윤신혜(지방교육부 과장, 간사正)
최윤지(재무관리부 대리, 간사副)
이미선(연구조사부 선임연구원, 디자인)
김영식(기획조정실 팀장)
김영민(계약사업부 수석차장)
박보우(경영지원부 차장)
전규성(기획조정실 대리)
신운용(지방재산부 대리)

도움주신분 추기숙(총괄책임)
(다기획) 이필용(윤필)
최진, 박상락, 박정웅, 김태연(기획진행)
이동훈, 이찬범, 정성희(편집디자인)
사재웅(제작관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0년사

60-YEAR HISTORY OF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1964 - 2024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www.lofa.or.kr
제작	(주)다니기획 www.dani.co.kr
ISBN	979-11-6212-173-3

Copyright ©2024 Local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본 도서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0주년

